
대한불교 조계종 대원정사 대작불사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인도돕기
부처님나라에 다시 불교가 싹트고 있습니다.
인도불교돕기추진위원회 (02)745-7799
조흥은행 741-04-365950(예금주 : 인도돕기)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9월 17일 수요일 (주간) 제 439 호

"눈물에 호소하는 나눔의 시대는 지났다"

NGO단체 후원 부족 활발한 활동이 '열쇠'

불교 NGO 중 가장 활동적이라고 평가받는 정토회(대표 유수). 정토회에서는 백일기도나 천일기도 입재시 매일 천원씩 보시하는 약속을 정해 연간 2억 8천만원 정도의 후원금을 모은다. 정토회 1년 예산 35억 기준으로 약 8% 정도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 이하 인드라망) 경우 후원금이 한 달에 50만원도 채 넘지 않는다. 10여 개가 넘는 다른 불교 NGO들의 사정도 인드라망과 별반 다르지 않다.

불교 NGO 후원 문화가 척박한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다. 인드라망 이정호 사무처장은 "우리 사회 후원 문화가 척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회 공동체 의식 부족이 불교 공동체 의식 부족으로 이어지고, 개개인의 기복을 위해선 쉽게 지갑을 열지만 공동체 발전을 위해선 인색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후원 문화 활성화를 위한 불교 NGO들의 인식 및 노력 부족도 한 요인이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불교재가연대 윤남진 기획실장은 "단체 프로그램이 불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고객 중심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사업에 대한 불자들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후원 사업 재정 투명성과 피드백(feedback)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정토회 장도연 실장은 "사업 시작부터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원자들에게 사업 진행 과정이나 성과를 알려줄 때 후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의 경우는 다른 불교 NGO 보다 후원금이 많은 형편이다. 새만금과 북한산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뛰어들다보니 그 만큼 후원금이 많이 답지한 것이다. 정성운 사무처장은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면 펼칠수록 후원금이 늘어난다"고 지적한다.

인드라망은 후원금 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후원받는 것을 선호한다. 능력이나 노력 봉사 등을 후원받는 일반 시민사회단체들의 사례를 표본으로 삼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조계종 중앙종회에 상정돼 있는 불교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한 종법 제정도 후원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눈여겨 볼 만 하다.

아름다운 1% 나눔 캠페인을 전개하는 아름다운 재단 기업사회공헌팀 정경훈 간사는 "눈물에 호소하는 나눔의 시대는 지났다"며 중고 물품을 기부 받아 되파는 '아름다운 가게' 등을 예로 들며 "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후원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음악이 있는 산사

천지에 가을색이 물들면서 산사에서는 '음악회상'이 잇따라 막을 올리고 있다. 문화포교의 총아로 떠오른 산사음악회는 불교와 대중이 열린 가슴으로 만나는 공간이다. 사진은 7일 열린 대구 법왕사 음악회 장면. 대구= 박원구 기자

내년 사찰보수 예산 금년 수준

100억 요청, 예산처 51억으로 삭감

국회문광위제출 자료

2004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예산이 문광부가 요청한 100억원에서 51억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밝혀져 부실공사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고흥길 의원(한나라당)은 문화관광부 종무실이 8월 20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찰 재정악화와 부실공사 등의 우려를 표명했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문광부는 당초 187개 사찰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예산을 마련했으나 기획예산처가 1차 심의에서 지원규모를 104개 사찰에 51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07개 사찰을 대상으로 51억원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지원예산이 높게 책정됐다"며 "지원한도액 6천만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51억원이 적당한 수준"이라고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목조건물로 된 전통사찰들의 주요 건축물들은 보수정비 단가가 일반 건축물들에 비해 높다"며 "6천만 원인 지원한도액을 1억원 수준으로 높여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9월 22일 시작되는 문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원예산 삭감으로 인한 사찰 재정악화와 부실공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며 "지원한도액 상향조정과 함께 104개 사찰에 17억 원을 추가한 68억원의 예산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평불협 법타 스님 등 23명 개천절 남북행사에 참석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 스님을 비롯해 회원 23명이 9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남북한과 해외 종교 · 사회단체 인사 등이 참가하는 개천절 남북공동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 300여명으로 구성된 남측 대표단은 직항로를 통해 방북, 10월 3일 평양 단군릉에서 개천절 기념식을 갖고 남북합동 문화공연과 통일기원 기념 식수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범종단 '불교환경연합' 출범

추진위 구성 11월께, 위원장 홍파 스님

각 불교종단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범종단 환경기구가 빠르면 11월경 출범한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총화종 총지종 보문종 원효종 등 9개 종단과 불교환경연대는 9월 8일 불교환경연합(가칭)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종단협 사무총장)을 선출했다.

설립추진위는 첫 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결성식에서 11월경 출범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10여 차례의 준비회의를 열어 정관과 사업계획, 예산안 등 창립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 향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가운데 참여를 희망하는 종단과 각 종단의 신도 · 신행단체의 추가적인 동참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설립추진위원장 홍파스님은 "자연환경 보존과 생명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북한산 릴레이' 회향 회룡사서 단식 계속

7월 14일부터 조계종 교구본말사 주지스님들을 시작으로 태고종 천태종 등 범종단적으로 참여한 참여정부의 '북한산 관통노선 백지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단식기도정진이 57일 째인 9월 8일 회향했다.

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법현 스님은 "우리는 관통도로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됐다"며 "추석 이후 회룡사 스님들이 단식 정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부산 · 밀양지역 스님들!
무료로 인터넷 배우세요
10월 1일부터 인터넷 · 한글 97 등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사업' 제 6차 교육이 부산과 밀양 지역 스님과 종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일정: 2003년 10월 1일부터 4주간(매주 월~금 오전 10~12시)
-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 교육장소: 부산우체국 정보화 교육실(051-466-0021)
  밀양우체국 정보화교육실(055-354-2801)
- 수강료: 무료(교재비 본인부담)
- 신청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부산지사
  지사장 김종열 051-632-0064, 011-219-5066
  현대불교신문사 밀양지사
  지사장 혜봉스님 055-353-1196, 017-650-1196
- 모집 인원: 부산 5명, 밀양 10명

※부산지역은 11월에도 1일부터 4주간 교육실시됩니다.

불교정보화협의회 · 현대불교신문사

이번호 20면 발행

현대불교신문은 수행 · 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90 충북:(043)258-3282 강릉:(033)643-5599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인터넷 '다음 카페(Daum cafe)'에 'Humble Mind(하심)'라는 불교모임이 있다. 이 모임의 회원 10여명이 추석 연휴기간인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계룡산 무상사에서 참선 정진을 했다.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하루 열시간 묵언 수행. 추석 연휴동안 가족과 휴가를 뿌리치고 산사를 찾아 용맹정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들이 추석에 용맹정진을 감행(?)한 이유는 일상에 쫓겨 이런 기회(연휴)가 아니고서는 단 며칠간만이라도 수행에 집중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것은 용맹정진에 대한 이들의 태도다. 추석 정진'을 떠나기 전 이들의 결심은 확고했다.

'추석 정진'

모임 대표자인 장정윤군(26, 美 워싱턴대 4년) "단박에 깨달아야 한다고 하신 성철스님의 말씀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저 혼자 갑니다."

회원 하정혜씨 "함께 가겠습니다. 확신을 들고서요."

회원 양경희씨 "이 추석안거는 여름휴가 때부터 생각했었습니다."

20~30대 회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Humble Mind'는 매월 한차례씩 3천배 철야정진을 해왔으며, 자원봉사활동도 펼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활발한 수행 및 신행활동을 해왔다.

'Humble Mind'의 제1의 원칙은 '불교를 제대로 알자'는 것이다. 청년 불교를 활성화하고 외국 불자들과의 교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부'가 중요하다는 확신 때문이다. 청년 불자들의 '추석 정진' 의지가 모든 불자들에게 메아리가 되길 기대한다. cafe.daum.net/humblemind

한명우(취재1부 차장)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 산 동 선 회 법 회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밤 10시 ~ 새벽 3시 대비주 철야기도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은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대비주 기도도량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전10시-오후3시, 장장 5시간에 걸쳐 논스톱으로 올리는 대비주 기도에 불자님들의 모든 바램을 한 번 멋지게 걸어 보십시오
주[대비주=신묘장구대다라니]

[Ⅲ-1030]기 도봉행
<제3차 1030일 지장천도기도>
입재 : 2003년 11월 2일 회향 : 2006년 8월 27일
우리모두 원없이 기도합시다

고암대종사 1주기 추모제
---------- 104주년 탄신제
추모제 : 2003년 10월 10일(9. 15) 10시 탄신제 : 2003년 10월 29일(10.15) 10시

제8주년 우리절 개산대재
2003년 10월 7일(화)10시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

사 설

출가, 그 아름다운 회향

박현태라는, 대학총장 국회의원 신문사 편집국장 등을 역임한 사회 저명인사가 남은 생애를 수행으로 마감하겠다고 출가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아직까지 유교적 가치가 사회저변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인도에서는 자식들을 다 키운 뒤 나이 들어 출가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것을 임서기(林棲期)라 한다. 조용한 숲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만행 등을 했다.

생각해보면 인간의 역사는 욕망과 처절한 다툼으로 점철되어 있다. 욕망의 추구가 역사를 진보시켰다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이나 본질적 가치가 욕망에 의해 판가름 된다고는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모순과 갈등, 맹목적 삶의 욕구와 고원한 가치의 추구 사이에서 방황하면서도 진정한 열반의 기쁨을 맛보려 하지 않는다.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것은 청정한 마음자리이다. 태어나기 이전의 내가 누구인지는 모를지라도 무상한 자연 속에서 순응의 도리와 달관의 경지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몸과 마음이 함께 출가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출가자는 더욱 정진해서 인천(人天)의 사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재가자들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어느 노(老)거사의 출가는 그래서 아름답게 느껴진다. 세상에서 위대한 것은 버릴 줄 아는 것이란 점을 되새겨 준다.

'북한산' 에서 정토구현으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북한산 관통을 반대 해 온 불교계가 9월 8일 '참여정부의 북한산 관통노선 백지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단식기도정진 회향법회'를 갖고 환경보살의 길을 더욱 올곧게 갈 것을 서원했다. 이 회향법회는 7월 14일부터 시작된 노무현 대통령의 '백지화 공약' 이행 촉구 단식기도를 마감하는 자리기도 하고, 새롭게 전개해 갈 불교계 환경운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지라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조계종의 모든 교구본사와 종단협의회 소속 전 종단의 참여가 일사불란했다는 점을 높이 사고 싶다. 따지고 보면, '북한산'은 불교계 환경운동의 중요한 상징이다.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북한산 관통도로 전면 백지화'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과 전불자의 환경보살화라는 과제 역시 오늘날 불교환경운동의 현실적인 성과와 지향을 직설적으로 상징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현실을 담보하면서 법계중생 모두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것이 불교환경운동 현장의 화두가 아닌가?

불교계의 환경운동은 보다 많은 저변의 공감대 속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청정국토 건설의 원을 세운 불자들이 늘어날수록 세상은 그만큼 더 맑아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인과 사회의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고 그 길에는 언제나 '심청정 국토청정'이라는 명제가 게시되어 있는 것이다.

불교계 환경운동의 중요한 과제는 바로 청정국토건설을 위한 한결같은 실천의 원력공간이 확산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특정단체의 이상과 목적이 아니라 모든 중생에 의해 온 국토, 나아가 법계가 청정하도록 하는 긴 안목의 환경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불교무형문화재 발굴·보존해야

총 115종목 중 불교 관련 4종목뿐

절음식·의례·그림자 연극등 대상은 풍부

문헌연구·전문가 확보·종단협력 등 필요

조계종은 올 3월부터 불전장엄용 지화(紙花, 종이꽃) 조사를 진행, 11월에는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9월 28일에는 조계종 스님들이 영산재를 재현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맥이 끊겨가는 불교 무형문화재 장인을 발굴하고 현존하는 작품과 기술을 찾아내 보존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금부터라도 불교무형문화재 보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단적으로, 국가 지정 유형문화재의 60% 이상이 불교 문화재인데 비해 무형문화재는 전체 115종목 가운데 영산재, 단청, 승무, 불교조각 등 4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 자체가 불교계의 관심과 노력 부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주강현 우리민속연구소장은 "불교문화 하면 탑과 불상만을 연상하지만, 절집에서 이뤄지는 모든 무형의 자산도 불교문화의 또 다른 절반"이라며 "지금까지 유형문화재에만 집중돼 있던 관심을 무형문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사찰음식, 각종 의례, 절집의 세시절기, 만석중 놀이와 같은 그림자 연극, 불교무예, 차문화 등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돼도 손색없다"고 주씨는 강조한다.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은 "과거 정치적 과도기를 이유로 무형문화재 보존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예술가란 직업이 '천직'이라는 부정적 인식, 기술보유자의 고령화, 이에 따른 원형보존과 전수 교육의 어려움 등이 모두 불교무형문화재의 빈약한 현실을 만들어낸 원인이다"고 밝혔다. 이 소장의 이러한 지적은 무형문화재 보존이 어려운 이유인 동시에 보존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성보보존위원 원명 스님은 "무형문화재 보존의 관건은 사람인만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헌연구를 통한 문화재 발굴, 현존하는 무형문화재의 세분화, 장기적인 안목을 갖춘 문화재 보존기구 설치, 문화재 전문가 확보, 범 종단적인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문화재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갓바위주차장 불법영업

경산시, 시정 약속

갓바위 공영주차장의 불법운영에 대해 지역불교계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산시가 9월 4일부터 주차장 관리대행권 일시중지를 명하고, 상가부지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중지 여부도 법률자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9월 5일 은해사와 선본사 스님 30여명이 경산시청 시장실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영조 경산시장과 만난 스님들은 이외에도 불법담합입찰로 밝혀진 상가부지의 원상회복, 관련공무원 해임, 경산시장의 공개사과 등도 함께 요구하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스님들은 경산시의회에도 갓바위 주차장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원구 기자

한국의 대표적 저항시인 고 조태일(1941~1999, 전 광주대 예술대학장) 시문학기념관이 출생지인 곡성 태안사에 문을 열었다.

곡성 태안사는 9월 7일 경내에서 백낙청, 염무웅, 이호철, 민영, 김준태, 나희덕, 곽재구 등 문인들과 유족, 지인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기념관은 연건평 170여 평의 목조 건물로 조태일 시인의 출생과 성장, 활동상을 전시하는 기념관을 비롯해 시집 전시실, 창작실, 휴게공간 등으로 꾸며졌다.

개관식에서는 또 69년 조태일 시인이 창간해 87년 당국의 압력으로 폐간된 <시인>지 복간보고회도 열렸다. 김지하 등을 배출했다가 폐간됐던 <시인>지는 이도윤 시인이 사비 2천만 원을 들여 발간한다.

태안사에 조태일 詩문학기념관 개관

시집 전시실·창작실·휴게공간등 갖춰

1941년 태안사에서 태어난 조태일 시인은 64년 경희대 국문과 재학 중 '아침선박'으로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 '눈깔사탕', '필요한 피', '홍은도의 뻐꾹새', '식칼론', '국토' 등의 작품을 발표했다.

김원우 기자

현장스님 불경필사본

바미안 석굴에서 발견

아프가니스탄 바미안 계곡의 석굴에서 당 현장(602~664) 스님의 산스크리트 필사본이 발견됐다.

9월 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문화재연구소 소속 연구진들은 구 탈레반 정권에 의해 파괴된 바미안 계곡의 석굴 유적을 조사하던 중 가로 5cm 세로 2cm의 불경 필사본 5개를 발견했다. 필사본은 나뭇조각에 먹으로 쓴 것으로, 서체로 미뤄볼 때 당 현장 스님의 필사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학술진행재단 지원으로 대장경 판본 연구를 하고 있는 최종남 교수(중앙승가대)는 "주석서인지 옮기는 과정의 필사본인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뒤따라야겠지만, 원전이 분실된 경전의 일부라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청도 용산사 뒤 30m서 도로공사

대웅전균열 등 각종피해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사찰의 수행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공사 시행주체 측에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구-부산간 산업고속도로 공사현장 중 문제가 된 곳은 제4공구지역인 경북 청도군 내리 용산사. 이 사찰 바로 뒤편 30m 지점을 지나는 도로공사로 인해 대웅전에 금이 가고, 균열 때문에 법당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 주지 도명 스님은 "절 뒤편 절개지 사면의 붕괴가능성이 높아 사찰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고속도로주식회사 측과 시공회사 측이 서로 책임소재를 떠넘기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현대' 만평

심 민 섭



행정문서 8일부터 공개

문화재청, 인터넷 통해

문화재청은 9월 8일부터 홈페이지(www.ocp.go.kr)에 '정보공개마당'을 개설해 결재 문서 및 보고서, 문화재 관련 통계-현황 자료 등의 행정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권형진 기자



'한국 선문화학회'가 창립됩니다

창립선언문

만유의 실존을 통찰과 직관력으로 바라보게 하고 공적(空寂)속에 상생과 조화로서 세상을 이끌어 온 선(禪)은 인류의 정신적 의지처이자 마음의 평온과 삶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정신문화의 보장(寶藏)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통해 불안과 고뇌를 해결하고 진정한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 걸림 없는 무애의 삶을 살았으며, 이웃에게는 자재와 여유, 안심(安心)과 적정으로 중생사를 이겨내도록 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다양하고 세분화된 가운데 급변하는 오늘날의 삶의 현상은 시대의 난제를 이겨낼 수 있는 정신세계와 행동양식을 요구하고 있고, 선 또한 여기에 맞춰 새롭게 조명되어야할 시점에 있습니다. 물질만능과 배금주의,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과 인간성 상실을 초래한 오늘날의 정신문명은 이제 더 이상 인류를 구제해 줄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류를 파멸과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종교와 종파를 초월한 선은 바로 이런 인류의 문제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유일한 활로(活路)라고 평가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많은 학자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선문화학회(가칭)를 창립하여 선학을 통한 시대사상의 정립 및 정신적 자재와 삶의 평온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본 학회에서는 선학의 기본 이론에 대한 정리 및 재조명, 선을 통한 현대적 제 문제의 극복방법 고찰과 대안제시, 기존 선문화에 대한 연구, 현대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선문화의 연구와 발표 등을 하고자 합니다.

선사상의 정립 및 현대적 조명, 시대문제의 선학적 접근과 극복방안, 새로운 삶의 환경 제시를 통해 선의 현대화와 생활화를 이루고, 나아가 전세계적인 교류를 통해 인류가 당면한 여러 난제들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학과 선문화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의 동참과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2003. 10. 4.
한국 선문화학회(가칭)

창립 학술대회 안내

한국선문화 학회(가칭) 창립 학술대회를 각계의 전문가와 제방의 고승대덕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거행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03년 10월 4일(토) 1시 30분**

■ **장 소 : 불교방송 3층 법당**

- **제 1주제** 한국 선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 ● 사 회 : 김상영(중앙승가대 교수)
  - ● 발 표 : 이덕진(창원전문대 교수)
  - ● 토 론 : 김방룡(원광대 강사), 김영욱(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 2주제** 한국 수행문화 현황과 전망
  - ● 사 회 : 송위지(서울보건대 교수)
  - ● 발 표 : 문을식(동국대 강사)
  - ● 토 론 : 미산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유진스님(동국대 교수)

■ **전 화 : 017-243-5838** E-mail : zen@zenculture.org **홈페이지 :** www.zenculture.org

〈발기위원 명단〉 각묵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고강옥(부경대 교수), 고명수(동원대 교수), 고재욱(강원대 교수), 권오민(경상대 교수),김 진(울산대 교수), 김경집(위덕대 교수), 김경회(대구대 교수), 김광식(부천대 교수), 김규칠(불교방송 사장), 김낙진(진주교대 교수), 김명식(진주교대 교수), 김문용(고려대 민연 교수), 김미영(서울시립대 교수), 김방룡(원광대 강사), 김병환(외국어대 교수), 김상영(중앙승가대 교수), 김성철(동국대 교수), 김영선(인천대 명예교수), 김영욱(가산불교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영환(부경대 교수), 김용정(동국대 명예교수), 김용헌(한양대 교수), 김은종(원광대 강사), 김종명(영산대 교수), 김종순(강원대 교수), 김주현(강원대 교수), 김준홍(대구정신병원 진료과장), 김천학(동경대 연구원), 김철수(창원전문대 교수), 김철완(정통부 정보격차해소위원장), 김치온(동국대 강사), 김태완(무심선원 원장), 마성스님(팔리문헌연구소 소장) , 문을식(동국대 강사) , 미산스님(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박경환(한국국학진흥원 책임연구원), 박광서(서강대 교수), 박봉우(강원대 교수), 박선영(동국대 교수), 박성배(스토니부룩대 교수), 박세일(서울대 교수) , 박영록(충주대 교수), 박영재(서강대 교수), 박영환(동국대 교수), 박용광(강원대 교수), 박원재(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 박재현(경희대 강사), 박종연(인제대 교수), 박태원(울산대 교수), 박해당(서울대 규장각 연구원), 방 인(경북대 교수), 선혜스님(선다전공자), 성태용(건국대 교수), 소은희(이화여대 교수), 손창대(국민대 명예교수), 송영신(한양대 강사), 송위지(서울보건대 교수), 신윤환(서강대 교수), 신종원(강원대 교수), 신철균(강원대 교수), 신희섭(KIST 교수), 안재철(제주대 교수), 안종태(강원대 교수), 양무석(대전보건대 교수), 양형진(고려대 교수), 오상무(고려대 교수), 오진탁(한림대 교수), 오채현(선조각가), 옥한석(강원대 교수), 용운스님(초의학술재단 이사장), 원경스님(송광사 학감), 원정근(증산도사상연구소 연구원), 유권종(중앙대 교수), 유병우(고려대 교수), 유진스님(동국대 교수), 윤경식(고려대 교수), 윤영해(동국대 교수), 윤용택(제주대 교수), 윤원철(서울대 교수), 윤종갑(부산카톨릭대 교수), 윤철환(「시우」지 주간), 은정희(서울교대 교수), 은희천(고려대 교수), 이계경(여성신문사 전 사장), 이덕진(창원전문대 교수), 이병욱(중앙승가대 연구원), 이복수(강원대 교수), 이상미(성신여대 강사), 이선미(방송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이선옥(선무용가), 이수덕((주)동진메카트로릭 대표이사), 이승환(고려대 교수), 이종철(정문연 교수), 이중표(전남대 교수), 이진오(부산대 교수), 이창구(전북대 교수),이태승(위덕대 교수), 이호근(강릉대 교수), 이효걸(안동대 교수), 임명화(동신대 강사), 임명권(대전대 교수), 임영택(단국대 교수), 장현천(한국부동산개발투자(주) 고문), 장호득(단국대 교수), 전경갑(부경대 교수), 전영하(JNLtech 대표이사), 정계섭(덕성여대 교수), 정균화(고려대 교수), 정기문(강원대 교수), 정대련(동덕여대 교수), 정상홍(중문학박사), 정세근(충북대 교수), 정영근(서울산업대 교수), 정천구(영산대 전 총장), 조기숙(이화여대 교수), 조명제(고마자와대 연구원), 조범환(서강대 교수), 조성택(고려대 교수), 조용원(원광대 교수), 종호스님(동국대 교수), 진철문(한국 조형연구소 대표), 차차석(현대불교신문 상임논설위원), 최성렬(조선대 교수), 최연식(서울대 강사), 최유진(경남대 교수), 최재영(외국어대 교수), 최정규(증산도사상연구소 연구원), 최종윤(강원대 교수), 한기문(상주대 교수), 허인섭(덕성여대 교수), 허일범(진각대 교수), 현남규(제주대 교수), 혜월스님(동화사 강주), 홍석경(고려대 교수), 홍원식(계명대 교수), 황명윤(한국예총 김천지부장), 황용식(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황인규(중앙승가대 연구원), 양민석(이화여대 여성학 연구소 연구원), 손수일(변호사), 김영재(대전시립미술관 관장)

조계종은 지난 5월 50년만에 발생한 최악의 홍수로 13만여명의 이재민을 낸 스리랑카에 총무원장 법장스님, 호계원장 월서스님, 포교원장 도영스님을 비롯해 불국사 주지 종상 · 수덕사 주지 법정 · 마곡사 주지 진각 · 화엄사 주지 명섭 ·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했다. 대표단은 9월 2일부터 6일까지 4박5일간 조계종 마을 조성식을 비롯해 주요 종단지도자 및 정부 수해대책 관계자 예방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대표단은 3일 라트나푸라 수해현장 방문에 앞서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시내에 위치해 있는 강가라마 사원을 참배하고 성공적인 방문이 될 수 있도록 기원했다.

"스리랑카 '조계종 마을' 양국 불교 · 경제교류 상징"

조성식 열린 날 현지 표정



◇'한국불교 조계종마을' 조성식이 9월 3일 지역주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리랑카 라트나푸라 현장에서 열렸다. 조계종 대표단과 스리랑카 정부관계자 등이 참가한 제막식 모습.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라트나푸라에 도착한 대표단은 수해현장으로 이동, 수산타 분치 닐라메 중소기업 장관, 랄 가마게 외교부 부장관,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민 1천여명으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주민들은 모래를 이용해 '조계종 대표단을 환영한다'는 문양을 만들고 직접 만든 화환을 목에 걸어주는 등 각별한 환영행사를 마련했다.

스리랑카 전통 춤인 '켈러니안단스' 공연단의 안내로 행사장으로 이동한 대표단은 '한국불교 조계종 마 을 (Korean Buddhist Jogye Village)' 제막식과 조성식에 참석했다. 조성식은 삼귀의례, 반야심경, 스리랑카 예불, 수해 희생자 추모묵념, 경과 보고, 환영사, 치사, 마을대표 답사, 1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 전달 등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마을은 부지 169필지에 가옥 1백여채, 마을회관, 의료시설, 공공시장, 학교, 사원 등으로 구성된다. 가옥은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춰 25평 규모로 건립된다.

조계종은 9월 1일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을 통해 전기 · 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1차 수재지원성금 5만 달러를 전달했으며, 은 전국 사찰에서 모금된 2억5천여만원의 성금으로 라트나푸나 현지에 병원과 학교, 가옥 등 100여채를 조성한다. 스리랑카 정부는 우기가 시작되는 11월 이전에 조계종 마을을 완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표단은 곧바로 이재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현장으로 이동했다. 현장은 유엔구호기금에서 보낸 천막으로 임시 조성돼 있었으나, 전기와 수도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비참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줬다. 10여평 규모의 천막 안에는 10가구 이상이 무리를 이뤄 생활하는 참담함도 드러냈다. 특히 병원이 없어 병자와 노약자들이 천막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임시 천막촌과 학교 등지를 돌아본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듣던 상황 보다 훨씬 비참한 모습을 보니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형제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주민들이 하루 속히 재앙을 극복하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랄 가마게 스리랑카 외교부 부장관은 "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산사태 현장에는 수해 발생 3개월이 지나도록 사체 발굴조차 이뤄지지 못해, 피해자 가족들이 넋을 놓고 있을 만큼 참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이 수해현장을 돌아보는 동안 주변에는 구호물품을 기다리는 어린이들이 떼를 이뤄 안타까움을 더했다. 학용품 등을 나눠주는 스님 주위는 서로 먼저 받으려는 어린이들의 몸싸움으로 순식간 아수라장이 됐다.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빠른 시일내에 조계종 마을이 조성돼 이재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을 돌아본 대표단은 다음날 4일, 스리랑카 수해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가루 자야수리야 부수상 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다. 자야수리야 부수상은 지난 5월 5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수해로 23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실종되는 등의 인명피해와 8,317가구의 가옥이 완파되는 등 13만7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라트나푸나 지역에서만 산사태 등으로 31개 마을이 파손되고 1,6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자야수리야 부수상은 "스리랑카 정부를 대표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한국불교계의 지원으로 조성된 마을은 양국의 불교 교류는 물론 경제 교류 등으로 이어지는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시암니카야 두 종정 예방

9월 4일, 옛 수도 캔디로 이동한 대표단은 부처님 진신치아사리가 봉안돼 있는 불치사를 방문한데 이어 스리랑카의 최대 종단인 시암니카야의 라북웰레 위파시(말와타 계통), 우두가마 붓다라키타(아스기리야 계통) 두 종정을 만나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대표단과 두 종정은 양국 불교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대 계파인 말와타 계통의 위파시 종정은 "수십만 이재민들은 아직까지 생계는 물론 생활터전의 복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불교에서 구호의 손길을 보내준데 대해 감사한다"며 "이번 조계종 마을 조성이 양국의 불교교류로 이어져 세계불교가 나래를 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은 "한국불교의 작은 정성이 수해를 입은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큰 위안과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하고 한국에서 준비해 간 성덕대왕신종 모형과 홍삼, 조계종 관계 서적 등을 선물했다.

대표단은 아스기리야 계통의 붓다라키타 종정 및 우루레왓떼 앗타닷시 부종정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붓다라키타 종정은 "수재를 당한 불자들을 위한 조계종 마을 건립은 부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리랑카= 박봉영 기자



◇조계종 대표단은 스리랑카 시암니카야의 두 종정을 예방했다. 말와타 계통의 위파시 종정과 환담하는 모습.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스리랑카 수해대책본부장 자야수리야 부수상에게 성금 약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라트나푸라 수해지역 어린이들은 서로 먼저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려 들었다. 불국사 신행 스님이 학용품을 나눠주고 있다.

11월 우기전 생활 터전 완공 목표

동국대 참사람봉사단 · 병원불자련 봉사활동

최악 수해 지역, 가옥 1백채 · 학교 · 의료시설 등 지어

◑ 조계종 마을 어떻게 조성되나

조계종은 지난 7월 '한국불교 조계종 마을'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9월 2~6일 스리랑카 현지를 방문했다. 이 방문에서 조계종은 조계종 마을을 빠른 시일내 조성하기로 하고 스리랑카 정부에 완공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

라트나푸라에 조성되는 조계종 마을은 부지 169필지에 가옥 1백여채, 마을회관, 의료시설, 공공시장, 학교, 사원 등으로 구성된다. 가옥은 방 2개,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갖춰 25평 규모로 건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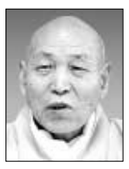
조계종은 9월 1일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을 통해 전기 · 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를 위한 1차 수재지원성금 5만 달러를 전달했으며, 조성 과정을 지켜본 뒤 총 2억4천여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조계종 마을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 국제교류기금 가운데 일부를 조계종 마을 후원에 사용하고, 동국대 참사랑봉사단과 전국병원불자연합회 등의 봉사활동을 조계종 마을에서 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 택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운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 택시
1588-5532

부처님께로 더 가까이...
성불 천수화
천수 천안 관자재보살님의 현신을 믿습니다
선물에도 최고! 만행에도 최고!
내자 제무
최저의 단가로, 최고의 품질을 개선하여, 전국의 비구니스님과 보살수행신도님의 용맹정진을 위하여, 새롭게 탄생한 성불 천수화 입니다.
* 최초의 모델이므로 사이즈가 230 ~ 250까지(10mm단위)로 한정 되어 있습니다. * 가격 : 30,000원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성불 천수화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보면 "일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그 음성을 듣고, 찾아와 즉시 괴로움을 없애 주고 모두를 해탈케 하고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고 했습니다. 또한 관음경에 이르길, 중생이 괴로움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을 한마음으로 외면 관세음보살은 즉시 그 음성을 들을시고 모두 해탈할 수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SW상사는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만들었습니다.
성불 천수화는 수행하는 보살님을 위해 과학적으로 만들어낸 명작입니다. 가죽이 아닌 신소재 피혁으로 제작되었기에 부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성불 천수화 입니다.
천수화는 신는 순간부터 소원을 성취하고 동서남북의 복을 부르는 옴자를 뒤축에,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를 자크에, 신발 안쪽 뒷면에 "성불합시다"의 문구를 넣어 만행 하기전에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신행화 입니다. 또한 뒤축부분을 연꽃으로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불교만의 독특한 표현을 하였습니다. 천수화는 만행하실때에 신는 순간부터 자신감과 영험을 느끼게 하는 케주얼 풍 최고급 신발입니다. 특히 타사 제품과는 달리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부담없이 신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평상시에 신어도 품위가 있고 세련 되게 디자인된 건강장수 기능성 신발입니다.
(주)SW상사 080-331-1818, 051-334-2494, 314-5618

일주문



광명선원 수계법회 법문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정일 스님은 3일 충북불교회관 대법당에서 봉행된 광명선원 보살수계 법회에서 법문을 했다.



'불교와 효' 주제로 법문

수원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은 20일 오후 3시 경기불교문화원 대법당에서 '불교와 효'를 주제로 법문한다. (031)251-1083



훈련장병 수계법회 봉행

서울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은 7일 충남 논산 육군 제2훈련소 호국연무사 큰법당에서 훈련장병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부산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은 4일 삼광사 향적당에서 불우 이웃돕기 100세대에게 1천만 원의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고려대서 19차 학술발표

불교학연구회장 해주 스님은 6일 고려대 서관에서 '조선 선불교의 임제선에 대한 이해'란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국제불광회 부산협 출범

부산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15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대만 불광산사 방장 성운스님 초청, 국제불광회 부산협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즐거운 책가방' 홈피 열어

정토회 대표 유수 스님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 '즐거운 책가방(http://shop.jungto.org)' 홈페이지를 열었다.



추석 이웃돕기 바자회

대구 천태종 대성사 주지 문덕 스님은 1일 경내에서 불우 이웃 돕기 추석 맞이 자비의 바자회를 열었다.



일일 무료 관법명상 실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목정배 총장은 21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교내 1층 101호 강의실에서 '일일 무료 관법명상'을 실시한다.



백제불교문화대학 수계식

대전 백제불교문화대학 사재동 학장(충남대 교수)은 3일 회관 법당에서 대학 이사장 장곡 스님을 계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제10회 장애우 나들이 행사

사단법인 우리는 선우 남지심 회장은 21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제10회 장애우 나들이 행사를 개최한다.



허길량 씨 사무실 이전

중요무형문화재 108호 허길량 불상 목조각장은 7일 작품 전시관을 한국불교역사문화관(공사중) 입구로 옮겼다. (02)738-1117



조계사서 무료법률상담

종합법률사무소 사람과 법 대표 이홍주 변호사는 7일 서울 조계사 신행사무국에서 무료법률 상담봉사 활동을 벌였다.



12주년 기념법회 봉행

대전 보현불교문화회관 오상현 관장은 4일 회관 설법전에서 전 포교원장 암도 스님 초청, 개관 12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장애인 재활자립교육에 주력"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원혜 스님



"장애인들이 재활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등의 프로그램 진행에 주력하겠습니다."

9월 5일 제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한 서울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사진)은 "이제는 장애인 복지의 양적 팽창보다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0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맡은 이래로 사회에서 소외받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해온 스님은 다른 복지관에 비해 작은 규모로 시작한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사회복지에 대한 열정으로 장애인 복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시켰다.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복지관 직원들과 봉은사 신도들이 장애인들에게 봉사활동을 해온 결과가 이렇게 작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작은 규모의 시설이지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스님은 특히 "모든 장애인들이 정상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동혁 기자

"불교의 사회적 역할도 모색"

11번째 백고좌 원만회향 실상 스님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불구하고 백고좌 법회가 원만 회향할 수 있도록 많은 호응과 구법의지을 보여준 신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신도님들의 참여를 통해 마련된 법석이었기에 그 어느 때 보다도 불자님들의 만족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매일 백 명의 고승대덕 스님들을 초청해 가진 백고좌 법회는 조계종 원로 정무스님을 시작으로 매일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룬 가운데 9월 8일 회향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사진)은 백고좌 법회의 공덕을 오히려 불자들의 몫으로 돌렸다.

"제가 한 것이라곤 스님들을 초청해 법석을 마련한 일 밖엔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백고좌법회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찾아온 신도님들의 정성과 신심이 더욱 소중하지요"

실상스님은 신라시대부터 널리 행해지다 조선시대 사라져버린 전통 백고좌 법회를 지난 94년 처음으로 부활해 올해로 11번째 법석을 최근 원만회향 한 것. 또 하루 앞선 7일에는 백고좌 법회 원만회향을 자축하는 산사음악회를 가졌다.

스님은 계속해서 9월 20일부터는 법왕사 서울분원인 동광사에서, 내년 1월 10일에는 부산분원 신광사에서 백고좌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대구= 박원구 기자

"생명공양운동 펼치겠습니다"

철도무사고 기원법회 조진규 철불협 의장



"철도의 생명은 안전입니다. 국민들의 수송은 물론, 국가의 소중한 재산을 실어 나르는 동맥이기에 철도공무원 불자들의 사명감은 남다릅니다. 무사고 기원법도 이 때문에 봉행하게 됐습니다"

9월 6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철도 무사고 기원법회'를 봉행한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조진규(사진) 의장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고모-경산간 열차 사고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왕생극락 천도와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기원은 철도공무원 불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조 의장은 이를 위해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 차원에서 고모-경산간 열차 사고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위령탑을 올 하반기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특히 '생명공양'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우선, '이웃과 함께 하는 철불협',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철불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단위 캠페인으로 이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생명공양 운동은 철불협의 실천목표가 될 것입니다. 미물까지도 보호하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넉넉히 베풀고 나누는 철도공무원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해나가겠습니다." 김철우 기자

애자모 지장탱화 점안식 봉행



포천 구담사 (주지 지율)는 7일 태아영가 천도를 위해 애자모 지장보살 탱화, 108동자상 점안식, 태아영가 49일 천도재 등의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월운(봉선사 조실) 스님, 혜성(도선사 회주)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서울 남대문署 불교회 정기법회



서울 남대문경찰서 불교회(회장 신두호)는 지난 8월 21일 서내 경승실에서 전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현봉스님 초청,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불교회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현봉 스님은 "3교대 등의 바쁜 일과 속에서 신심을 키워나가자"고 법문했다.

한솔종합복지관, 송편 나누기



성남시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화)은 9월 4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 결식아동, 무료급식소 이용노인 등 총 250여 세대를 대상으로 '송편과 생활용품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과 주부 봉사자들이 도우미로 나섰다.

우리는하나,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

전 국 불 교 음 악 제

제 3회 전국불교음악제는 "우리는 하나, 마음도 하나, 뜻도 하나"라는 주제로 전국 12개 지회와 700여개의 전국 합창단중 선별된 100여개의 합창단 1,200여명이 첨여하여 불교음악인들의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는 국내 유일한 찬불가 대축제입니다.

청명한 가을빛이 어루어진 이곳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환희 가득한 찬탄의 법석(法席)에 참여하시여, 가슴에 울려 퍼지는 찬불가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7(2003)년 9월 20일(토요일) 오후 6시 30분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 통일대불전
◆ 주 최 :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02)723-0440 ~ 1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동화사 ☎ 053)985-4404
◆ 후 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태고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진각종. 대한불교관음종. 대한불교총화종. 대한불교보문종. 불교총지종. 전국비구니회.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방송(BBS). 불교텔레비젼(btn). 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법보신문사. 대한불교신문사. (주)유성건설. 대구은행. (주)호성청과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CUMIN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목어

문화재 보전의 '업그레이드'



이기선
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

얼마 전 흥미로운 외신보도를 보았다. 프랑스 루블 박물관에 있는 유명한 '미로의 비너스(Venus de Milo)'에 관한 기사였다. 이 상은 에게 해에 있는 퀴크라데스 제도(諸島)의 하나인 메르스섬에서 1820년에 발견되었으므로 '미로의 비너스'라 불리게 됐다.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상은 비록 두 팔이 없지만 많은 비너스상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고 있는, 세계적인 지보(至寶)이다. 보도의 내용은 최근 잃어버린 두 팔을 찾아냈는데, 두 팔을 복원 할 것인가 아니면 현 상태대로 둘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접하면서 뇌리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나라 도처에 있는 목이 잘린 불상들의 모습이다.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 문화재 보전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원형을 보전해야 하겠으나, 때로는 이미 원형을 상실한 문화재 가운데 현상태로 그냥 두는 것보다 지금까지 거둔 학술적 성과를 원용하여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탑과 불상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무너진 탑을 수복(修復)하는 경우, 없어진 일부 석재를 새로 만들어 끼워 넣어 탑을 세우고 있다.

얼굴은 인체에서 가장 잘 띄는 부분으로, 외부에 드러난 인격(人格)을 상징한다. 하물며 불자들 예경의 대상으로 조성된 불상에서 머리가 없는 채(또는 조잡하게 임의로 불두(佛頭)을 조성한 경우도 있음)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는 현재의 관리 방식은 반쪽의 문화재 보존(保存)이라 생각된다.

이제 문화재를 아끼고 지키는 일에도 열린 의식이 필요하다. 시쳇말로 문화재 보전도 업그레이드하자.

삼성 SDI 선재동자원에 기금 전달

의정부 선재동자원(원장 지산) 68명의 천진불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삼성SDI 자원봉사팀 '사랑의 빛'은 9월 5일 선재동자원 요사채 신축에 써 달라며 '사랑의 빛 펀드'를 통해 모금한 5천만원을 전달했다. 68명의 선재동자원생들은 그동안 비좁은 컨테이너 건물에서 힘든 생활을 해 왔는데 그것마저도 지난 8월 화재로 전소돼 텐트에서 생활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군죽비

러, 달라이 라마 입국 불허

러시아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 달라이 라마 입국 불허 방침을 재차 시사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9월 4일 성명서를 통해 "달라이 라마에 대한 비자 발급 여부는 국익과 국제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러시아는 티베트를 중국과 분리할 수 없는 영토로 간주한다"고 밝혀 입국 불허 방침을 내비쳤다. 러시아는 지난해 8월을 비롯해 모두 2차례에 걸쳐 달라이 라마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불자 세상보기

최종석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정명(正命)'과 주5일제

필자는 15년 전 독일의 볼푸스부르크에 있는 폴크스 바겐 자동차공장에서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독일의 노동자들과 똑같이 현장에 투입되어 조립라인에서 일했다. 당시 아르바이트 학생으로서 공장에서 기름때를 묻히며 느낀 점은 작업시간의 효율적 분배와 생산라인의 인체공학적 배려가 일의 능률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작업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독일인들의 직업의식이 놀랍고 부러웠다. 이미 그 당시 독일에서는 주 5일제 근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주말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낸다. 또한 자기 계발을 위해서 취미활동에 열중한다. 역시 좋은 제품은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단순히 노동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분배, 노동자들의 작업의욕과 창의성의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현재의 노동시간이 짧아지고, 주5일제 근무로 바뀐다고 해도 생산성은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문제는 노동자들의 의식에 달려있다. 독일인들은 자신의 직업(Beruf)을 신이 자신에게 내려준 것이라고 믿고 있다. 철저한 소명(召命)의식을 갖고 일한다.

우리 불자들에게 있어서 주5일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는 왜 일을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이고 부처님을 닮으려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따르고 올바른 버릇을 키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 부처님을 닮아 가는 길인 팔정도에서 정명(正命)은 우리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대답을 하고 있다.

진리에 비추어 이루어진 올바른 행위는 당연히 바른 생활을 하게 되며, 바른 직업을 통해서 바른 의식주를 영위하게 된다. 정업이 개인적인 차원의 의미가 강조된 행위라고 한다면, 정명은 사회 안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성격을 갖는다. 각자의 생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만의 생존을 위해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하루에 모자를 백 개 만드는 사람이 그가 만든 모자를 자신이 모두 쓰고 다니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쓰고 다닌다. 사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자를 만드는 것이다. 왜 일을 하는 것인가? 이웃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회생활 속에서 연기법을 깨닫고 사는 것을 정명이라고 한다. 주말의 여가시간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다. 정신없이 개미처럼 일만 하는 생활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다. 개미는 다른 곤충들이 먹어야 할 것까지 다 걷어들인다. 개미의 부지런한 모습이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개미는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일하는 욕심꾸러기다.

미얀마 사람들의 일상을 보자. 그들은 매일 귀가 길에 꽃을 사들고 불전에 봉헌하는 것으로 하루의 생활을 마감하고 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금분을 사서 불상에 입힌다. 이런 삶을 최고의 행복으로 삼고 있다. 부처님이 생활의 중심에 계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도 지금껏 물질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왔다면, 다시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고 부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겠다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주5일제를 받아들이는 불자들의 자세는 바로 여기에 있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마당

체험하며 스스로 느끼는 교육 됐으면

법현스님(불교환경연대 조직실장)

불교환경연대 주최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태학교를 4차에 걸쳐 시행했다. 산, 강, 바다를 주제로 북한산, 신륵사, 부석사 등지에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자연해설로 어린이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에 중점을 뒀다.

필자는 출가 이후 여러 어린이 법회를 운영하며 부처님의 교리를 하나라도 더 전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주입식 위주의 종래 학습교육을 답습했다. 그러나 이번 생태학교를 운영하며 느낀 것은 구태여 어린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1회때 유치부로 참가한 어린이가 죽어있는 벌을 보고 아프니까 이불을 덮어줘야 한다며 낙엽을 덮어 필자의 가슴을 적신적이 있다.

이제는 종래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어린이 스스로 느끼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생태학교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박종한(서울 방산초등학교 6)

여름방학체험학습 숙제 중 환경체험을 선택했다. 불교환경연대에서 주관하는 생태학교에 등록한 후 천년고찰 부석사에 도착했다. 우리는 궁리갯벌에서 알지 못하는 각종 생물들을 봤다. 정말 신기했다. 선생님께서는 사라져가는 희귀종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돋보기로 봐야 보일 정도로 작았다. 또 죽은 해파리 떼들이 너무 많이 있었는데 참 불쌍했다.

삼각대에 설치해 놓은 망원경으로 괭이 갈매기, 왜가리, 백로 등 철새도 관찰했고, 하얀 손수건에 꽃잎 물들이기도 했다. 손수건에 꽃잎과 풀잎을 대고 숟가락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사물놀이하는 것처럼 절을 들썩이게 했다. 가을에도 겨울에도 할 수 있다면 생태학교는 계속됐으면 참 좋겠다.

불교의 해석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성법스님(www.sejon.or.kr 운영자)

'진화론'을 기독교의 '창조론'에 도전한다고 여기는 사람이나, 불교의 구사론에서 물질을 '질애(質碍)'로 단정 지어버린 단견 등은 말 그대로 구시대적 이분적 사고의 결과입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서구의 '신과학운동(New science movement)'은 종교와 과학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불교는 이 같은 이론과학의 발전을 통해 경전 속에서 말해지던 형이상학적인 논제들이 새로이 해석되어질 수 있는 절호의 시절인연을 맞이했습니다. '공(空)'과 '연기(緣起)'등의 종교적 용어들이 '양자론'과 '상대성 이론'을 통해 일상적 언어로 충분히 풀이되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불교는 그 해석과 수행법, 신도교화 방법 등 모든 방면에서 바뀌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제 학사 도전할 것

오승보(청송 감호소)

저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호소에 들어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에서 보내준 사경책 5권을 고맙게 잘 받아보았으며,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열심히 쓰는 등 부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고시반에서 공부하면서 8월초에 대학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학사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허망이요, 현실이라 생각하고 더러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자비로운 부처님과 함께 앞으로 다가올 저의 삶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독자투고

납골 사업, 사찰이 잘 하려면….

병진스님(일산 장안사 주지)

화장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납골 사업을 시작하려는 곳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지금, 먼저 납골 사업을 경험해 본 선험자로서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찰이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자 한다.

납골 사업은 불교 포교 사업과 올바른 장례문화의 확산이라는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 대개 납골 사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 하나가 작은 공간에 많은 유골을 안치해 투자비에 비례해서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갖는, 떼돈을 버는 사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찰에서는 외부의 투자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대개 분양권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외부의 투자자는 납골 사업을 수익성만 갖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가 납골당을 짓는 과정에서 분양을 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사찰 측과 투자자 상호간에 불신이 생기게 되고 법적인 분쟁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 이렇게 되면 납골 사업이 효자 사업이 아니라 애물단지로 둔갑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며 나중에는 사찰 자체의 운영을 황폐화시키는 경우도 보게 된다.

납골당을 하고자 하는 사찰에서는 기존 종교시설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적게는 100여기, 많게는 500여기 내로 납골 사업을 시작해, 자기 절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납골 시설허가를 받으려 한다는 취지로 관청의 주무담당자를 상대하면 보다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031)901-1954

불자님들을 위한 대한항공 특별 전세기 운항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 문화탐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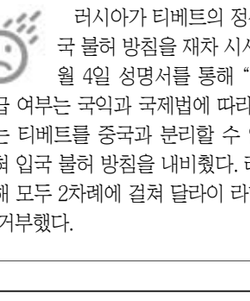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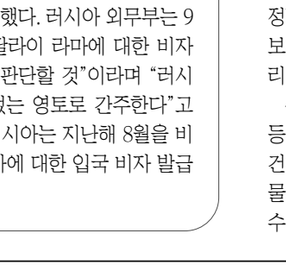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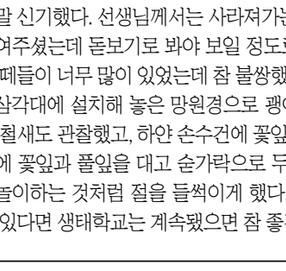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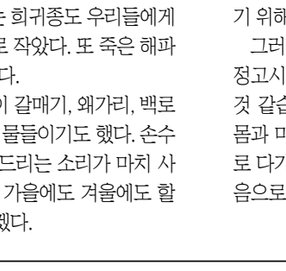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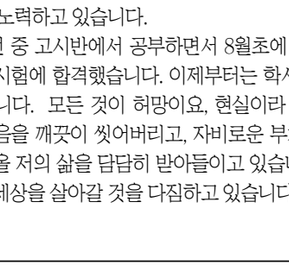
초특가 (3박4일) ~~₩749,000~~ ₩449,000 (단 3회 한정 / 선착순 500명/10월 1, 4, 7 출발)

✲ 성지순례 : 오대산(중국 4대 불교성지) 운강석굴(세계문화유산/중국 3대 석굴)

✲ 문화탐방 : 평요고성(세계문화유산) 운강석굴(세계문화유산/중국 3대 석굴)

(4박5일) ~~₩899,000~~ ₩599,000 (단 2회 한정 / 선착순 200명/9월27, 10월10 출발)

✲ 문화탐방(3박 4일) + 북경 관광 추가 (천안문 만리장성 자금성)

주관 여행의 명문 한진관광 후원 대한항공 BBS 불교방송

공동 판매여행사 / 자유 3455-0037 / 하나투어리스트 2127-1517 / KRT 2124-5566 / 롯데 399-2303 / 범한 2001-4515 / 현대 3014-2336 / SK 2196-4021
한경리치웨이 755-9988 / 투어2000 319-2110 / 한화투어몰 3114-346 / 팬더 7777-230/ VIP 757-0040 / 한진관광 서울 02)726-5788 / 부산 051)463-2115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불교성지순례

일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KE	10:10	인천국제공항 집합		
	태원	전세기	11:30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착후 점심공양후	조 중	 현지식
10/01						
10/04			19:00	오대산 이동(문수보살 도량)	석	현지식
10/07	오대산			저녁공양후 호텔 투숙		
				HOTEL | 오봉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2일	오대산	전용버스	06:30	아침공양후		
			07:30	수상사(법회), 탐원사,현통사,보살정,대라정 순례	조	호텔식
10/02			13:00	점심공양후 오대산 출발		
10/05	대동		16:30	항산 현공사 순례	중	현지식
10/08			19:00	대동 도착후 저녁공양 및 호텔 휴식	석	현지식
				HOTEL | 태화촌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3일	대동	전용버스	07:00	아침공양후		
			08:00	구룡벽, 운강석굴 견학	조	호텔식
10/03	태원			점심공양후		
10/06			12:00	대동출발	중	현지식
10/09			13:00	태원 도착후 저녁공양		
			18:00	발마사지 및 호텔 투숙	석	현지식
				HOTEL | 유원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4일	태원	KE	07:00	아침공양후		
			08:00	진사 순례	조	호텔식
10/04		전세기			중	
10/07	인천		13:00	태원 출발		
10/10			16:00	인천공항 도착후 해산 - 성불하십시요 -	석	

중국 태원 문화탐방

일자	출발 / 도착	교통편	시 간	주요 행사 일정	식 사	
제01일	인천	KE	10:10	인천국제공항 집합		
	태원	전세기	11:30	대한항공편으로 인천 출발 태원 도착후 중식	조 중	 현지식
10/01				간단한 시내관광(쌍탑사) 관광		
10/04			18:00	석식후 호텔 투숙	석	현지식
10/07						
				HOTEL | 영서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2일	태원	전용버스	07:00	호텔 조식후 태원 출발		
			08:00	중식	조	호텔식
10/02	항산		13:00	향산 현공사 관광		
10/05	대동		13:40	대동 향발	중	현지식
10/08			14:10	운강석굴 관광		
			15:40	석식후 호텔 투숙	석	현지식
			18:00	HOTEL | 대동빈관 또는 동급호텔		
제03일	대동	전용버스	07:00	호텔 조식후		
			08:00	구룡벽 관광후 대동 출발	조	호텔식
10/03	태원		08:30	태원 도착후 중식	중	현지식
10/06	평요		13:30	평요고성, 교가대원 관광		
10/09	태원		18:00	석식후 호텔 투숙	석	현지식
				HOTEL | 영서호텔 또는 동급호텔		
제04일	태원	KE	07:00	호텔 조식후		
			08:00	진사 관광	조	호텔식
10/04		전세기			중	
10/07	인천		13:00	태원 출발		
10/10			16:00	인천공항 도착후 해산	석	

※상기 일정은 출발 당시 항공스케줄 및 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즈라바이라바(19~20세기).

한빛문화재단 소장 탕카52점

한국최초 대영박물관 특별展

11월23일까지 타라보살등 예술성 높은 작품



영국 대영박물관의 한국전시관에서 박물관 개관이래 최초로 한국인 개인 소장 특별전이 9월 1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열린다. '티베트의 유산-한광호 소장 탕카전'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티베트 불화 탕카는 한광호 한빛문화재단 이사장과 한빛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탕카 2천여점 중에서 엄선된 것들로 13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 제작된 완성도 높고 예술성 깊은 작품들이다.

전시품들은 관세음보살과 자비심과 선행의 표상인 '타라보살'을 비롯해 석가도, 나한도, 미륵도, 아미타 등 만다라 속 부처그림 외에도 부처에서 수호신 역할을 하는 장대한 불상이나 허공을 날아다니는 보살상 및 현지의 영적 지도자들에 관한 작품 등 52점이다.

불상 등 티베트 미술품들은 정치적 이유 등으로 티베트에서 대거 반출돼 주로 영국이나 뉴욕 등지에 흩어져 있으나 이번에 전시되는 탕카의 경우는 대영박물관에도 몇 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전시의 특별함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 전시는 대영박물관에 한국관이 없다는데 충격을 받은 한광호 한빛문화재단이사장(75 · 사진)이 2000년 120평 규모의 한국관 오픈을 위해 후원한 데서 계기가 된 것. 이후 한 이사장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정부로부터 '명예시민훈장'을 받기도 했다.

한광호 이사장은 2일 영국으로 떠나기 전 가진 인터뷰에서 "탕카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분위기 때문에 세계인들에게 관심이 높지만 국내에는 별로 호응이 없어 전시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며 "올해도 대영박물관에 1백 파운드 정도 기부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전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불교미술을 소개하는 전시도 기획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제7회 대한민국종교예술제가 10월 11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대한민국 종교예술제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등 7개 종교가 함께 문화예술 분야를 통해 종교간의 화합을 이뤄내자는 취지로 1997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다.

이번 종교예술제는 11일~15일 영화제(서울애니메이션센터 영상관)로 시작돼, 16일~22일 미술제(서울 국제 디자인 아트프라자 3층), 28일 음악제(국립극장 해오름극장)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종교예술제
10월11일~28일까지

단편영화 25일까지 공모

특히 영화제는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편영화를 공모, 수상작을 상영한다. 공모작은 장르 제한 없이 30분 이내로 된 창작 작품이어야만 하며, 신청접수는 9월 15일, 응모작 마감은 16~25일까지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종교예술제 홈페이지 (www.kr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화제 집행위원장 이기원 감독은 "단편영화를 통해 '사랑과 평화,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영화제에서는 '보리울의 여름', '오세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등이 상영된다. 한상희 기자

'구도 · 깨달음의 성자'…나한 150점 한자리



◇송광사 16 나한도(부분).



◇영월 창녕사지 오백나한상 중.



◇영월 창녕사지 출토 나한상 중.



◇송광사 16나한도(부분).

춘천박물관 개관1주년
10월26일까지 특별전

나한. 아라한(阿羅漢)의 줄임말로 소승불교에서 수행자가 이를 수 있는 최고의 단계에 이른 자를 뜻한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최응천)이 개관 1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구도와 깨달음의 성자(聖者), 나한'전은 나한신앙과 그에 관련된 유물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회다.

9월 8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일본 지은원에서 대여해온 '오백나한도'와 보물 1367호 '송광사 16나한도', 영월 창녕사지에서 출토된 '오백나한상' 등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나한 관련 유물 150여점이 선보인다. 나한은 종교적 색채가 강한 불 · 보살상과 달리 일정한 틀에 얽매이지 않아 만드는 이의 개성이 듬뿍 묻어난다. 우리민족의 소박한 심성을 닮은 익살스런 얼굴표정을 넣은 파격적인 모습의 나한들도 있다. 오유진 기자

"고려시대 스님들 필사통해 불서유통 사경은 공덕신앙 결집된 우수예술품"

정병삼교수, 국제학술심포지엄서 발표

고려시대는, <고려대장경>과 <직지심경>의 발행을 이유로, 흔히 목판인쇄와 활판인쇄의 전성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숙명여대 정병삼 교수는 9월 4일 미디어 · 역사 · 문명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고려시대 스님들은 필사를 통해 불서를 유통했으며, 당시 사경은 공덕신앙과 회화 역량이 총 결집된 우수한 예술품"이라고 발표했다.

사경(寫經)은 불교 경전의 내용을 붓으로 베껴 쓰는 일이다. 처음에는 경전의 내용을 배우거나 널리 전파 · 보존하기 위한 현실적인 목적에서 시작됐던 사경이, 이후에는 사경하는 행위의 공덕을 중요시하게 된다. 정 교수는 "고려시대에는 공덕을 쌓아 수복과 안녕을 기원하는 사경 공양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며 "경전의 내용을 압축해 그림으로 설명한 변상도(變相圖)를 그려 넣은 사경은 불교 공덕신앙과 제지, 염료 기술의 발달, 불교회화 역량을 한데 모은 미려함과 호화로운 장식이 절정에 이른 예술품"이라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균여 스님의 <법계도 원통기> 전래처럼 소규모의 서적 전승은 여전히 필사가 유효한 통로였다"고 덧붙였다. 오유진 기자



불 상(8)

땅속에서 솟은 부처님들

안개 낀 어느 날 아침, 경주 시내에 있는 굴불사지 사방불을 찾았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부처님들이 바위 속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안개 때문에 그러한 환상이 보인 것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배경의 바위가 자연 그대로 다듬지 않은 상태인데다 불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기에 그러한 착각이 들었던 것이다. 인위적인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자연스러움을 살리려는 의도인 것이다. 도대체 왜 이처럼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데 치중한 것일까? 그 궁금증은 <삼국유사>에서 풀 수 있다.

신라 경덕왕(재위기간 742~765)이 백률사를 가던 도중 산 밑 땅 속에서 나는 염불소리를 들었다. 하도 신기해서 그곳을 파보게 하니 사면에 불상이 조각된 큰 바위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그곳을 불상을 파낸 절이라는 의미로 굴불사(掘佛寺)라 명명했다. 바위를 다듬어 불상을 제작한 것이 아니라 땅 속에서 불상이 출현한 것이다. 적어도 굴불사지 사방불은 그러한 느낌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이 기사와 함께 실려 있는 사불산(四佛山)의 기사를 보면, 이보다 한 술 더 뜬다. 사면이 한 발이나 되는 사방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하나는 땅에서 솟았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떨어졌으니, 그 출현이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처럼 자연스럽게 표현된 굴불사지 사방불이 신라문화가 절정기에 달한, 석굴암과 불국사가 조성된 경덕왕 때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석굴암이라면 인공미의 절정을 보여준 대표적인 유적인데, 어떻게 자연스러움을 극도로 살린 굴불사지 사방불이 같은 시기에 공존한 것일까? 그러나 이 불상들이 서로 다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공통점도 있다. 그것은 당대에 유행했던 여러 표현기법을 한 유적에 종합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서쪽의 아미타삼존불을 보면, 아미타불은 높은 돋을새김으로 새겼고, 양옆의 보살들은 두리새김으로 따로 만들어 세웠다. 반대쪽 동쪽에는 약사불을 새겼는데, 얼굴은 돋을새김으로 입체감을 충실하게 나타내었으나 점차 아래로 내려오면서 돋을새김이 낮아져 급기야 배경의 광배는 음각 선으로 파고드는 흐름을 보였다. 또한 남쪽에는 삼존불을 배치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왼쪽의 보살상이 떨어졌다. 나머지 불 · 보살상은 모두 돋을새김으로 새겼는데, 통일신라 조각의 관능미를 보여주고 있다. 북쪽에는 미륵보살상과 십일면관음보살상이 나란히 새겨져 있다. 미륵보살은 돋을새김, 십일면관음보살상은 선각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다. '기법의 종합'이라고 할 만큼 당시 애용된 기법들이 다양하게 활용된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표현방식은 석굴암 조각들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니, 8세기 중엽 경덕왕 때 조각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굴불사지 사방불. 다양한 표현방식의 여러 부처님들이 자연의 바위 속에 계시는 모습을 표현하였는데, 사방불 뒤의 둑을 따라가며 보아야 더욱 실감이 난다.

지하서 염불소리 들려 파보니 불상이…
출현방식 신라인의 토속신앙과 연관

제6회 한국정토학회 학술세미나

■일 시 : 2003년도 9월 20일(토) / 이사회 : 오전 11시
세미나 : 오후 1시
■장 소 : 부산 감로사 삼천불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33번지)
■문의전화 : 부산 감로사 051)803-0188
한국정토학회 02)581-3138

■주 제 : 정토 의례 · 의식
■사 회 : 이법산스님(동국대)
■기조강연 : 강동균 회장 (동아대 교수)
■발 표 자 : <제1주제> 최법혜스님(동국대 교수) - 사원청규에 나타난 정토의식
토론 : 이범홍교수(창원대)
<제2주제> 이태원스님(중아승가대 교수) - 정토 예참
토론 : 김용환교수(부산대)
<제3주제> 한보광스님(동국대 교수) - 정토 예불 및 발원문
토론 : 곽만연교수(동아대)
<제4주제> 정각스님(동국대 교수) - 천도의시게 나타난 정토사상
토론 : 김재일법사(동산반야회)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 감로사
주 관 : 한국정토학회

평불협 창립 11돌 기념

소년소녀가장 · 독거노인돕기 후원의 밤

귀의 삼보 하옵고,
통일보살의 요람인 평불협에서는 창립 11돌을 맞이하여 남북이 하나되고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는 원행으로 「소년소녀가장 • 독거노인돕기 후원의 밤」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꼭 참석하셔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된 이웃과 북한동포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십시오.
자리를 빛내주심으로 동체대비의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나무통일보살마하살

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이사장 정인악 회 장 법 타 합장
북한사리원금강국수공장후원회 회 장 김도현 합장

⊙공 연 일 정 2003년 9월 24일(수) 오후 7시
⊙공 연 장 소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대연회장
⊙티 켓 문 의 평불협 ☎02)735-5558~9 전송 735-5564
http://www.bubtanet.org
⊙ 협 찬 한국마사회, 대선제분, (주)천영의전클럽
⊙ 후 원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은해사, 조계사, 동화사, 불국사, 도선사, 봉은사, 화계사
구룡사, 대전사, 선본사, 포교사단, 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주간불교, 만불신문, 대한불교
⊙후원계좌 예금주 신광수(평불협) 국민은행 205-25-0009-491

BBS 대구불교방송 www.dgbbs.co.kr FM94.5 MHz
포항·안동 중계소 오는 11월 개국
중계소 설립 후원전화 060-701-0408 (한 통화당 2,000원)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거제 금강사
외국인 노동자 한가위 잔치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풍물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한가위…oh! Happy day!

잔치소식에 보련회등 무료진료, 봉사 자청
주민들 2백여 귀한 손님 대접에 함박웃음
흥겨운 사물놀이와 함께 마음도 하나

7일은 스리랑카와 루마니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뿌리얀나와 마헤시에겐 'Happy Day' 였다. 금강사에서 열어준 한가위 맞이 잔치에 와서 무료진료를 받고, 한국 음식도 맛보며 수월리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냈기 때문이다. 뿌리얀나는 3년 계약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섬' 스리랑카를 떠나 한국의 섬도시, 거제도에 온 지 4개월차. 올 추석은 한국에서 맞는 첫 명절이다.

한국 동료들이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고 연휴를 기다리는 동안, 마헤시도 루마니아 친구 7명과 함께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속절없이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거제시 시현읍에 있는 금강사(주지 성원)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무료진료와 한마당 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 채 적응도 되지 않은 타국 생활의 외로움을 달랠 뿐이었다. 그러나 7일, 뿌리얀나, 마헤시 일행들은 금강사가 인근 수월초교에서 마련한 한가위 잔치에서 "Happy! Happy!"를 연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운 가족들도, 타국이라는 낯설음도 잠시 잊고 수월리 마을 어르신들의 웃음 속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기분이었다.

이날, 금강사가 한가위를 맞아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잔치를 연다는 소식을 접한 감로심장회(이사장 승욱스님)와 진주 경상대병원 불교모임인 보련회(회장 강석휘), 진주 선학로타리클럽(회장 김길수)에서 선뜻 함께 할 뜻을 비쳐 무료진료소까지 문을 열게 됐다. 매주 일요일마다 진주 봉곡로타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사랑의 진료소(소장 하우송)를 열고있는 경상대 병원 보련회에서도 무료진료를 자청했다. 그 뿐만 아니라 감로심장회와 선한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진료 보조로 바쁜 일손을 덜어주었다. 흉부외과 이 상호 교수, 안과 유지명 교수, 일반외과 하우송, 박순태 교수, 이비인후과 안성기 교수와 박희자 간호사외 7명의 간호사들이 진료 준비를 마치자, 접수와 진료, 처방, 침치료가 일사분란하게 진행됐다. 통역 자원봉사를 맡은 금강사 신도들의 안내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하나 둘 진료소를 찾았다.

마헤시도 진료를 받아 보기로 했다. 평소 건강한 편이였지만 페인트 일을 시작한 이후부터 팔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주) 우방에서 함께 페인트공으로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같은 증상을 호소했다. 병원을 가는 교통편도 잘 모르고, 형편도 어려워 병원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무료 진료 기회는 건강을 점검해볼 좋은 기회였다. 중국 북경에서 온 원연위씨와 길림성에서 온 조선족 이홍길씨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 온지 8년째를 맞은 이홍길씨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겠다는 각오로 웬만큼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는다"며 "이렇게 치료를 받게 해 주어서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홍길씨를 비롯 이날 사랑의 진료소에는 스리랑카, 폴란드, 루마니아, 조선족, 중국 등의 외국인 근로자 50여명과 지역 노인 등 120 여명이 찾아와 진료를 받았다.

교실에 마련된 사랑의 진료소가 한창 환자들로 붐빌 시간, 금강사 금강회 자원봉사 회원 40-50명은 일주일 전부터 준비한 음식상을 차려내기에 여념이 없다. 2백 명의 손님대접을 위해 통영까지 나가 장을 보고 3일전부터는 음식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다. 잔치 하루 전인 6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강회 회원 10여명이 음식준비로 하루 종일 절에서 보냈다.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이에요. 특히 멀리 고향을 떠나와 명절을 맞는 외국인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꼭 챙겨야 하는 식구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어요." 불고기를 구워내고 있던 김옥주 보살의 손길은 진료를 마친 외국인들이 상에 둘러앉기 시작하자, 더욱 바빠졌다. 사람들의 얼굴엔 함박웃음이 피어나고 잔치의 흥이 무르익기 시작했다. 운동장 가득 국악 가락이 흘러나오자 운동장 한가운데 마련된 차양 밑에서 (사)한각다도회 금강사지부가 다도시연을 시작했다. 마헤시 일행과 루마니아에서 온 근로자들이 다도시연장으로 모여들었다. 말차다례와 전차다례가 열리는 동안, 이들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다도회 회원들의 손놀림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지켜봤다. 다도 시연이 끝나자 다도회 회원들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차를 대접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진촬영을 부탁하기도 하며 차를 맛본 후에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무료 진료장면.



◇외국인을 위한 다도 시연회.

이어진 한마당 잔치는 거제시 문화패 소리울(회장 심상희) 회원들이 흥겨운 풍물놀이로 시작됐다. 꽹과리, 북, 장고, 징 소리가 따갑게 내려앉은 햇살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고깔을 쓰고 장고를 맨 소리울 회원들이 만든 큰 원안에서 마을 할아버지와 마헤시, 뿌리얀나와 친구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다. 풍물소리가 자진모시, 휘모리 장단으로 흥겨움을 더하자, 이를 지켜보던 마을 주민들의 박수소리도 높아졌다.

오후 2시경, 무료진료가 마무리되었다. 각종 의료장비가 정리되고 교실에 차려졌던 통증치료를 위한 침 치료실도 문을 닫았다. 그러나 잔치상에 모여 앉은 외국인들은 오래 동안 자리를 뜨지 않고 정담을 나누며 넉넉치 못한 살림살이와 낯 설은 이국의 외로움을 잊고 한가위의 풍성함을 나눴다. "도움이 필요하면 형편 닿는 대로 꼭 도울 테니 자주 만나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성원스님의 굳은 약속이 있어, 금강사의 한가위 잔치는 긴 여운을 뒤로한 채 내년을 기약할 수 있었다.

글=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금강사 주지 성원스님

"어려운 사정알고 밥 한끼 대접하려"
기업체의 자발적 참여 없어 아쉬워



"얼마 전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금강사를 찾아왔어요. 그들을 만난 후 이국 땅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그들의 사정을 알게 됐고, 그것이 오늘 행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강사 주지 성원스님은 "민족의 축제라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 명절에 더욱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대접하고 싶었다"며 이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성원스님은 "돈을 벌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대부분을 보내고 어렵게 생활한다고 들었다"며 "그들을 위해 앞으로 법회나 각종 행사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마음을 나누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 하나로 시작했던 행사였지만 기업체들의 반응이 그리 협조적이지 않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이면 불평불만이 많아지고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기업체에서 계획에도 없던 자체 체육대회를 열어서 참여를 못하게 하더군요." 섭섭함을 토로한 성원스님은 "그러나 마음이 순수하면 내년에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겠냐"며 마음을 돌렸다.

금강사가 수월리에 자리를 잡은 지 일년 남 짓. "이웃과 함께 숨쉬는 불교, 불교와 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는 스님의 발원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각종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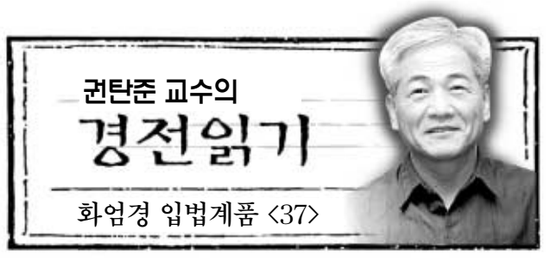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대광왕의 법문

인자한 마음 으뜸되는 삼매법문은 자비심 근본으로 중생 교화하는 구제법

선재동자는 무염족왕의 가르침에 따라 묘광성에 이르러 대광왕(大光王)을 만나 법을 구하니,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크게 인자한 깃발의 행(大慈幢行)'을 닦으며 그것을 충분히 성취하였다. 나는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이 법을 묻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닦아서 장엄하였다. 나는 이 법으로 왕이 되었고, 이 법으로 가르치고 거두어 주며 수행하게 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인자한 마음에 머물러서 인자함으로 근본을 삼아 인자한 힘을 갖추게 한다. 그리하여 안락한 마음 · 불쌍히 여기는 마음 · 중생을 버리지 않는 마음 · 항상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려고 하는 마음을 내게 해준다.

나는 이 법으로써 중생들로 하여금 항상 기쁘며, 몸에는 괴로움이 없고 마음은 청량하며, 생사의 애착을 끊고 정법으로 살아감을 즐거워하며, 번뇌의 더러움을 씻고 나쁜 업의 장애를 깨뜨리며, 생사의 흐름을 끊고 진정한 법의 바다에 들어가며, 모든 중생의 길을 끊고 온갖 지혜를 구하며, 마음바다를 깨끗이 하여 무너지지 않는 신심을 내게 한다. 선남자여, 나는 이 '크게 인자한 깃발의 행'에 머물러서 바른 법으로 세간을 교화한다. 선남자여,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중생은 모두 나를 두려워함이 없다.

선남자여, 이 묘광성에 있는 중생들은 모두 보살들로서 대승의 뜻을 내었으며,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보는 것이 같지 아니하다. 어떤 이는 이 성이 좁다고 보고 어떤 이는 이 성이 넓다고 보며, 흙과 자갈로 땅이 된 줄로 보기도 하고 여러 보배로 장엄한 줄로 보기도 하며, 흙을 모아 담을 쌓은 줄로 보기도 하고, 보배로 쌓은 담이 둘리었다고 보기도 한다. 선남자여, 만일 중생이 마음이 청정하고 선근을 심거나, 부처님께 공양하여 온갖 지혜의 길로 나아갈 마음을 내어서 거기에 끝까지 이르려 하거나, 내가 과거에 보살행을 닦을 적에 거두어 주었던 사람이면 이 성이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하였다고 보지마는 다른 이들은 더러운 줄로 보게 된다.

선남자여, 이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오탁악세에서 나쁜 짓을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가엾이 여기는 마음으로 구호하여 보살들의 '인자한 마음이 으뜸이 되어 세간을 따라주는 삼매'에 들어가게 한다. 이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 중생들이 가졌던 무서워하는 마음 · 해롭게 하는 마음 · 원수로 생각하는 마음 · 다투는 마음들이 모두 소멸되나니 왜냐하면 보살들의 '인자한 마음이 으뜸이 되어 세간을 따라주는 삼매'에 들어가면 으레 그렇게 되기 때문이다.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리면 마땅히 보게 될 것이다."

이때에 대광왕이 이 삼매에 들어가니 그 성의 안팎이 여섯 가지로 진동하며 보배 땅 · 보배담 · 보배강당 · 보배궁전 · 누각 · 섬돌 · 창호 등 모든 것에서 묘한 음성을 내며 왕을 향하여 경례하며, 묘광성 안팎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환희용약하면서 왕이 있는 데를 향하여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 왕의 처소에 가까이 있던 새와 짐승들도 서로 쳐다보고 자비한 마음을 내어 왕을 향하여 공경하고 예배하며, 모든 산과 들과 초목들도 두루 돌면서 왕을 향하여 예경하고 못과 물과 샘과 강과 바다가 모두 넘쳐 솟아서 왕의 앞으로 흘러갔다. 일만의 용왕과 천왕들이 허공에서 풍악을 연주하고, 무수한 천녀들은 노래하고 찬탄하면서 수없는 꽃구름을 비내리며 왕에게 공양하였다.

또 한량없는 나찰왕 · 야차왕 등 악독한 중생들이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 중생을 해치던 것들이 자비심을 일으키고 이익된 일을 행하며, 후세의 과보를 분명히 알고 나쁜 업을 짓지 아니하며, 공경하고 합장하여 왕에게 예배하였다.

이때 대광왕이 삼매에서 일어나 선재동자에게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다만 이 보살의 크게 인자함이 으뜸이 되어 세간을 따라주는 삼매문을 알 뿐이다."

대광왕이 설하고 있는 보살의 '크게 인자함이 으뜸이 되어 세간을 따라주는 삼매문'의 법문은 보살이 대자비를 근본으로 해서 세간의 여러가지 중생들을 교화하여 구제하는 법을 설한 것이다. 대승의 보살행은 어디까지나 중생을 위한 크나큰 자비심이 근본이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활동 작용하여 여러 가지 지혜로 나타나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왕의 이름이 대광(大光)인 것은 항상 중생들을 크게 이롭게 해주고자 하는 삼매의 빛으로써 여러 중생들을 비추어 그들을 이롭게 하고 자유자재하게 교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대비심은 참으로 커다란 힘이 있어서 중생들의 잘못되고 악한 마음을 바로잡아 선업을 짓게 하며, 그것을 가짐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보고 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광왕이 '크게 인자한 마음이 으뜸이 되어 세간에 따라주는 삼매'에 들어가니 주변세계가 아름답게 변하고 악독한 중생들이 악업을 그치고 자비심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⑩

직지인심-9

지난번에 독자 여러분께 생각해보실 문제를 하나 드렸었는데, 숙제를 하셨는지 모르겠다. 싯달타는 생사, 즉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가했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부처님이 되었다는데,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었다는 것인가? 자아라는 관념과 그것이 일으키는 온갖 감정 및 판단, 인식이 모두 조작된 것이지 실체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무아(無我)의 교리, 또한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교리와 관련해서 생각해보시라고 하였다.

싯달타가 종교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를 표현하는 이야기로 사문출유(四門出遊)의 일화가 있다. 성안에만 머물며 세상의 실상으로부터 차단된 쾌적한 삶을 누리던 싯달타 왕자가 성밖으로 나가 늙은이, 병자, 시체를 차례로 목격한 뒤, 태어났으면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 삶의 괴로운 실상에 눈을 뜨고 의문을 품었다고 한다. 왜 태어나고 죽어야 하는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도 닦는 수행자를 보았고, 자기도 그 생사의 문제를 풀기 위해 언젠가는 출가수행을 하겠노라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스물 아홉 살에 그 일을 결행했고, 치열한 수행 끝에 마침내 목표를 이루었다고 한다.

자, 그러면 석가모니는 분명히 생사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얘기이다. 다시 말하자면 생사를 극복하였다. 어떻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석가모니는 생사 문제라는 것이 원래 없음을 깨달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워낙 문제가 아니었으니 해결이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다. 다만, 우리가 생사라는 것이 있다고 여김으로써 생사를 겪고 그것을 문제로 삼을 뿐이다.

생사의 문제, 그 자체가 원래 없으니…

이에 대한 설명으로 내놓은 것이 십이연기설(十二緣起說)이다. 왜 늙고 병들어 죽는가? 십이연기설에서 이에 대한 답은 "태어났으니까"이다. 늙고 병들어 죽는 고통을 안 당하려면 안 태어나면 된다. 언뜻 들으면 농담으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건 농담이 아니라 심각한 얘기이다. 세상은 고해(苦海), 즉 삶은 괴로움의 바다라는 말은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았다느니, 성적이 나빠 좋은 대학교에 못 간다느니, 키가 작아 고민이라느니, 먹고살기 힘들다느니 등등 시시콜콜한 문제가 아니라, 생사라는 정말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문제를 붙들다 보니까 그런 진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시콜콜한 작은 괴로움들은 반드시 해결책이 있으며, 그 자체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다른 즐거움으로 보상된다. 그러나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문제는 그 어떤 즐거움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삶은 괴로움이라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저 단순히 염세주의라고 여기면 짧고 얕은 이해, 아니 오해이다. 가장 근본적인 괴로움을 해결하여 가장 근본적인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데에서 나온 말이니까.

아무튼, 그러면 태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 대목부터 십이연기설이 무척 어려워지는데, 복잡한 이야기를 늘어놓아 보았자 골치만 아프니까 이것도 일단 매우 단순화시켜서 이해해보기로 하자. 아시다시피 십이연기의 꼭대기, 즉 우리가 이 세상에 한 개별자로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무명(無明), 즉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무명에서부터 태어남까지 이르는 그 사이의 복잡한 이야기는 참 알아듣기 어렵다. 그 이야기는 다음 회에 펼치기로 한다.

■윤원철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13>

차이와 차별

아름답게 잘 가꾸어진 화단을 볼 때면 우리는 우선 그 찬란한 꽃들의 모습에 감탄함과 동시에 그 화단을 곱게 가꾸어낸 주인의 마음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름모를 수많은 꽃들에 비하여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꽃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한편, 벌레 먹어 죽어가는 풀도 있고 잘 자라는 풀도 있지만, 벌레 먹어 죽어가는 풀이 있기에 배불리 먹고 잘 자라는 벌레도 있음을 생각할 때 다양한 이 세상 모든 것은 병든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모두 함께 있을 때 진정 구족한 것임을 알게 된다.

이렇듯 자연계는 스스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름답다, 보기 싫다, 선하다, 악하다, 길다, 짧다 등등의 많은 기준을 지니고 분별하며 아름다운 것, 선한 것, 보기에 좋은 것, 그리고 청정한 것만을 취하려 한다. 그러나 소위 못난 것이 있어야 아름다운 꽃이 있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못난 것이 지닌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오탁이 있기에 청정이 있음을 알 때 오탁과 청정은 상호의존의 관계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일한 것임을 알게 된다. 어찌 생과 사가 둘이요, 부처와 중생이 따로 있을 것인가.

오탁이 있기에 청정이 돋보이는 이치
'집착'이 '화엄세계' 파괴하는 근원

따라서 우리 눈에 아름다운 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화단의 아름다운 꽃 한 송이 만들고자 그 주위에서 솎아버렸던 튼튼하지 못한 꽃들과 이름모를 잡초들의 생명을 생각할 때 우리의 아름답다는 기준이 얼마나 인간만의 횡포이며, 더 나아가 소위 생명과학의 이름으로 인간의 취향에 맞게 자연의 생명체를 조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오만인지도 잘 알 수 있다.

이렇듯 자연은 삼라만상 모든 것을 각자 제 모습대로 그대로 여여히 드러내어 모두 다 제 몫을 하면서 제 모습대로 천하의 기틀을 보이고 있으며 이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에 구족한 것이다. 왜 내가 괴로움 속에 있어야만 되느냐고 묻지 않아야 한다. 자기가 지은만큼 받을 뿐이니 무엇을 버릴 것이요, 무엇을 취할 것인가. 그것은 마치 장미만 있는 세상이 보기 흉한 것과 같이, 또 아름다운 꽃도 곧 지고 마는 것과 같다. 그리고 본디 괴로움도 아닌 우리의 환상이듯이.

우리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사물의 성주괴공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는 생명과학은 허공꽃을 찾아 헤매는 격임을 알아 다양한 생물종으로 장엄된 이 화엄세계를 파괴하는 우리의 집착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동시에 비록 본 마음자리에는 우리가 아무 것도 할 바 없으나 돌에 짓눌린 잡초 하나를 곧 바로 펴주는 한 손길, 주위에 헐벗고 고통 받는 이에게 작은 것 하나 해주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주의 모든 사랑이 담기게 된다. 오늘도 이 화엄법계를 이루는 한 생명체로서 모든 생명과 하나로 존재함에 무한한 즐거움과 감사함을 느끼며 더 나아가 아름다운 꽃, 쓸모없는 잡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두에게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나니 나와 너의 기쁨이 온 우주의 기쁨이 되며, 너와 나의 아픔이 온 세계의 아픔이 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저 효사는 「육임(六壬)」 지방 강의를 재개(再開)합니다

저는 금번 전국 여러 어른들의 요청에 따라 아래 지역에 육임학당을 직접 개설하고 매주 직강(直講)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현인 · 기사 · 이인 각위(各位)께서는 이번 기회에 저와 육임 공부의 인연을 지어 활인천역(活人天役)에 큰 활용 되시기를 권하옵고, 저는 신명를 바쳐 실기(實技) 위주의 육임을 알려 드리므로써 단기간에 좋다는 육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육임은 모든 술법에 앞서는 정확 기민한 오행술 입니다. 우리 활인천역자가 인연만 주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습득해 둘 필요가 있는 고등술법인 것입니다. 이번 저의 지방강의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이오니 등록하십시오. 후회없는 3개월이 될 것입니다.

■ 강의 일시 및 장소

- 육임학당 「광주숙」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 2003년 9월 15일 시작 (종전의 「광주숙」은 장소 · 지회장 · 강주가 폐지 교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육임학당 「진주숙」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 2003년 9월 23일 시작
- 육임학당 「부산숙」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 2003년 9월 24일 시작
- 육임학당 「대구숙」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 2003년 9월 25일 시작 (종전의 「대구숙」은 장소 · 지회장 · 강주가 폐지 교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육임학당 「효사숙」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현재 제 6기 진행중(10월 14일 금 - 제 7기 시작)
- 육임학당 「전주숙」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 2003년 9월 27일 시작
- 육임학회회원 지도강의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무료) — 현재 정기 지도 강의중

신 간 안 내

「각일 각시 출생자 운명예언 비법」

- 태아(胎兒) 선택 분만 吉日 吉時 선정 -

우리가 선택 분만에 따른 길일 길시를 뽑게 될때 매우 지난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번 써 놓은 이 책을 사용하시면 60갑자 각 일과 각 시간에 따른 출산 길흉이 적시되어 있으므로 한 눈에 살펴 길일 길시를 선정 할수 있고, 또 여러 날과 여러 시간을 순서적으로 잡아 줄 수 있게 끔 해 놨습니다. 이 책의 활용요령은 비디오와 CD에 담아 책과 함께 보내드리오니 이것을 보시면 인연따라 더욱 크게 활용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사주기둥세우는 기초」, 「격북 용신잡는 원칙」, 「여자 성(性)능력 판단」 등이 실려있습니다.

- 값 74,000원

● 입금처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 수강료는 3개월 150만원(효사육임강의록 상 · 하권 - 값 410,000원 - 교재로 드림) 입니다. 본 강의록을 이미 구입하신 분은 수강료에서 공제해 드립니다.

■ 문의전화는 02-996-3335로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받겠습니다. 효 사

아함경에서 건진 지혜 (제37화)

"'명상은 어떻게 하는것인가'"

〈출전 : 남전 상응부경전.9.11〉

글·그림 한정우
칼라 정 욱



이렇게 들었다

장관 해임건의안

책임 싸움에 슬퍼하는 국민

국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선재는 다리가 떨어지거나 건물이 무너진 일도 없는데 왜 행정자치부 장관을 해임하려 하는지 궁금했다. 올해도 잊지 않고 반복된 수해 때문에 그런가 하는 추측도 해보았다. 해임건의안 보도만 무성할 뿐 왜 그런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언론의 틈을 비집고 알아낸 이유는 지난 달에 있었던 한총련의 미군 부대 기습 시위 때문이란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장관의 해임을 승단의 입장에서 보면 바라이죄를 처벌하는 것과 같다. <율장>에서는 승려의 죄를 판단하고 징계하기 위한 '갈마법'을 할 때, 주재하는 승려나 인원수, 절차 등에 대해서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또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백사갈마'를 통해 신중에 신중을 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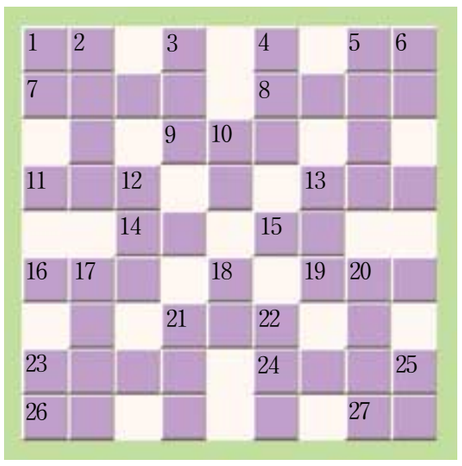
한총련이 미군 부대에서 시위를 한 것이 과연 치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인지는 의문스럽다. 더욱이 아무런 피해가 생기지도 않은 사건을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선재는 도무지 모르겠다. 어쩌면 우리 국회는 우리 국민보다 미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작 온 국민이 슬퍼하는 일에는 그토록 입을 다물고 있으니 말이다.

<사분율>에서는 계율을 제정한 열 가지 의미 중에 '대중의 화합'과 '안락', '참괴한 자의 안락', '정법을 오래 유지시키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중아함경>에서도 "계를 가지는 것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뉘우칠 일을 하지 않게 하는 데 뜻이 있고, 뉘우칠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즐거워하게 하는 데 뜻이 있다. 기뻐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든 악업을 그치게 하는 데 뜻이 있다"고 하고 있다.

과연 지금의 해임건의안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무엇을 그치게 하기 위한 것인가?

■최원섭(성철선사상연구원 연학실)

상식퍼즐



〈438호「교리퍼즐」정답〉



가로

1. 하루 종일, 일정 기간동안의 모든 날 5. 아미타불의 약칭 7.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함 8. 가사를 물로 세탁하는 법 9. 자기와 남을 차별하는 견해 11. 이방원의 '하여가'에 답한 정몽주의 시조 13. 대구의 옛 이름 14. 날짜를 선택해 정함 15. 말을 탐 16. 단 하나밖에 없는 신 19. 흙으로 빚어서 높은 온도로 구운 그릇 21. 미술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대학 23. 화엄종에서 우주만유 일체의 사물이 무한의 관계를 가지고 일체화 되어 있음을 표현 24. 자기가 한 일을 자기 스스로 칭찬함 26. 없던 것이 새로 태어남 27. 학사 석사 다음의 과정, 널리 아는게 많은 사람을 비유.

세로

1. 독차지, 독점 2. 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이 더 간절해 짐 3.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 말하는 사람 4.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 5. 아름답게 꾸민 말과 글 6. 방망이나 채로 때리거나 치는 방법 10. 사리에 맞고 온당함 12. 집안을 지켜 주는 신 13. 달마스님을 주제로 한 그림 17.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류, 일체유정 18. 작전의 수행 방법이나 기술 20. 제 마음으로 스스로 번뇌를 일으켜 괴로워 함 '자기의 밧줄에 스스로 묶인다'는 뜻 21.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를 비유, 물질을 부수어 미진이 된 만큼의 수 22. 큰 자비 23. 거듭 새로이 함 25. 칭찬하는 말이나 글.

화제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2가지소원이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전래되는 북한의 금강염주를 국내 반입하여 조립 시판하고 있어 화제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北韓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발견되는 세계 하나 밖에 없는 희귀 금강석으로 이곳은 서산대사의 고향이며 원효대사께서 해골물을 드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 안거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는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오며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는 신비와 영험의 염주로 옛날부터 전해오고 있는 염주입니다.

걱정고민 금강염주가 해결

금강염주는 수험생 자녀를 둔 가정, 사업이 풀리지 않는 분,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 승진을 기다리고 계신 분,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 분, 연분을 찾고 계신 분,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 투병중인 분, 큰 고민거리를 갖고 계신 분은 신비의 금강염주가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금강의 강력한 氣기 발산되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수천 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으며 불에 넣어도 타거나 녹지 않고 24시간 생육광선과 금강의 강력한 氣가 발산되며 정진 발원시 일념무아 되는 세계유일의 염주입니다.

부처님께로 가까이…

염주는 부처님께로 가고자 하는 마음의 법구이므로 항상 귀중하게 생각하며 정중히 사용해야 복을 받고 소원이 성취됩니다.

금강염주 점안식 방법

금강염주를 받으면 사용 하실분이 꼭 개봉해야 하며 가정에서는 상위에 올려놓은 다음 2가지 소원만 기원하며 3배 하신후 어느 누구도 만지지 못하게 3일간은 높은 곳에 올려놓고 3일후부터 사용하면 됩니다.

금강염주는 12단주와 108염주 1set이며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되며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농협 743-02-563237 정해철 금액 195.000

금강염주사문의 (02)723-0909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등기소포로 전국어디나 받아 점안식을 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406호

상쾌한 숙면 건강한 하루

신비의 은행석편지



저는 북한에서온 은행석입니다. 구조상 특성과 화학적 조성과 강한 흡착 및 살균작용으로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를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약 20분이면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10분 내로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이외도 고급 난초 및 나무등도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 등이 예방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거와 같이 깊게 숙면을 하며 꿈이 줄어들고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몸이 찌뿌둥하고 목이 뻐근하며 어깨가 뭉쳐있는 것도 없어지고 몸이 개운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또한 천식등 기침을 하는 분은 베게속에 은행석을 넣고 2시간 정도면 기침이 멈춥니다.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희귀 광석으로 일부 고위층 인사들만 사용을 하고 있으며 저를 잘 믿고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며 건강하고 장수하시는데 한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수험생, 수술을 받으신분, 불면증, 두통으로 고생 하시는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 노약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물론 누구든지 베게속에 넣고 사용하시면 뇌에 관한 병은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 지며 10년운 더 건강하게 사세요.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1143-12-049474 송 명화

왜? 치아로 고생하세요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잘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스님은 치아로 인한 고생은 없으세요.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를 사용해본 스님들이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일반치약 처럼 사용하시고 7일만 사용하면 입냄새는 없어지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무력, 잇몸농증, 찬음식 뜨거운 음식을 드실 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되어요.

1set면 1년정도 사용하며 온 가족의 치아를 건강하게 다스리는 생약초 치약입니다. 본 제품은 사용해 보신 분들에 의해 그 진가가 더욱 증명되고 있습니다.

※ 1set가격은 60,000원입니다.

문의전화는 (02)722-2890 입니다.
♠농협: 360-12-046446 최 능우

자차석 박사의 불교공부 가이드



정법호지계

대승불교사상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정법을 호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의 계율로 규범화 시킨 것도 있다. 대승불교의 경전들 중에서 불성에 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는 <열반경>은 정법호지계의 주창자라 할 수 있다. 물론 대승경전에는 부촉품이 있어서 정법의 유통을 위해 힘써 달라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규범화 된 것은 아니다. <열반경>에 나오는 정법호지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일 비구가 법을 파괴하는 이를 보고도 그냥 두고 달려가 꾸짖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불법의 원수다. 만일 달려가 꾸짖는다면 이들은 나의 제자요, 진실한 성문이니라."

둘째,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법을 수호해야 한다. 법을 수호하는 과보는 한량없이 크고 넓으니라. 선남자여, 그렇기 때문에 법을 보호하려는 우바새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법을 지니는 비구를 옹호해야 하느니라. 설사 5계를 갖추어 받아지녔다고 하더라도 대승의 사람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5계를 받지 않았더라도 정법을 보호한다면 대승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바른 법을 수호하는 사람은 칼이나 병장기를 들고 법사(法師)를 호위해야 하느니라."

셋째, "임금이나 대신, 장자, 우바새 등이 법을 수호하기 위해 칼이나 작대기를 지니더라도 그 사람은 계행을 갖는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왜 이러한 계율이 생기지 않으면 안되었을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자. 먼저 정법을 파괴하는 사람을 보고도 방관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행동이며, 원수나 마찬가지라 정의한다. 정법을 수행하는 수행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바새가 무기를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5계를 수지하고 있더라도 법사를 보호하지 않으면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렇지만 이상에서 말하고 있는 경전의 내용에는 초기불교의 율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계율의 정신과 어긋나는 내용이 있다. 무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가르침과 5계를 받지 않고도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가르침이 가능했던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게 되었을까? 많은 연구가들은 초기불교시대에 편집된 경전과 대승불교 경전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것은 경전을 편집한 사람들이 다를 것이라는 점이다.

경전의 편집자들이 달랐다는 점에서 불교적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초기불교 이념과 다른 불교운동가들을 대승불교운동가라고 후대의 불교사학자들은 명명하게 되었다. 이들은 초기불교의 이론을 더욱 실천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득권층인 부파불교교단의 강한 비판과 압박을 받게 되었다고 본다. 물론 대승불교운동의 보편화는 대승불교운동가들 중에서도 다른 입장의 운동가들이 등장하며, 여기서 법의 정통성을 둘러싼 논란이 첨예하게 전개되었다고 분석한다. 그런 점에서 자파의 존립을 위해 압박과 비판에 거세게 대항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정법이란 무엇인가? 결국 자기가 속한 종파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초기불교 이래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4제 8정도와 무상, 고, 무아의 가르침에 입각한 4념처관의 실천을 의미하는 것인가? 경전의 내용에 충실하자면 정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열반경>을 가르치는 법사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며,

'가르침' 잘 지키고 전하기위한 규범
자비·용서로 해결안될때 '절복' 허용

경전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열반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법을 수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그것은 정견(지혜)을 갖추고, 대승경전을 잘 설명하며, 임금에게 실수하지 않고, 이익을 위해 국왕이나 대신, 장자에게 다가가지 않으며, 시주자들에게 아첨하지 않으며, 위의를 갖추어 파계한 사람들까지 항복받는 것 등이다.

법사란 경전의 내용을 해설해 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경전과 법사는 동일시된다. 정법을 보호한다는 것은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량한 중생의 생명을 현양하기 위해 자신의 희생도 마다해선 안 된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달리 칼이나 막대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수용해야 하나? 현대사회가 다양한 만큼 포용할 것은 포용하고, 항복시킬 것은 항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도구로 이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것을 절복(折伏)이라 말한다. 인생지사는 자비와 용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은 데 그럴 때 부득이 무력은 사용하되 욕심이나 미움이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본지 상임논설위원 · 불교학 박사>

지상 백고좌

근일스님

(부석사 주지)



◇23년째 한번도 빠짐없이, 부석사 월말 철야참선법회를 지도해온 근일스님은 "참선을 본업으로 알고, 생활은 부업으로 삼아 공부하라"고 당부한다.

깨닫기 위해
믿고 알고 수행하라

탁! 탁! 탁!

(법단에 올라, 주장자 세 번 내려치시고)

억!

궂은 날씨에도 철야정진에 참석하신 불자님들은 모두 1당 백의 근기를 가진 분들입니다. 23년 동안 진행해 온 이 철야법회에 매번 만사를 제쳐두고 오시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바른 불제자로서 한량없는 공덕을 지닌 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이 헛되지 않고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잡된 생각을 다 쉬고 안팎으로 소란한 소리에도 끄달리지 마시고 '얇은 얼음 위를 걷는(如履薄氷)' 마음으로 법문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장자를 들어보이시며)

여기에 주장자가 있습니다. 만약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이것을 본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 것 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이것을 본다면 시를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밥 짓는 아낙네가 이것을 본다면 불쏘시개로 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도 닦는 사람이 이것을 본다면 법(法) 방망이로 쓰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세상만사 모두가 다 자신의 업대로 본다는 것을 말하는 것 입니다. 즉, 오늘 제가 법문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 모인 불자님들께서는 우리 부처님의 최고 이상이자 목표가 바로 '상구보리 하화중생' 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깨닫기 위해서 믿고, 알고,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려고만 한다면 주변에서 다 도와줍니다. 전부가 도(道)의 모습이고 도와주는 것인데, 한 생각 잘못 일으키면 오히려 장애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을 갖되, 지금 화두가 안된다고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앉아있는 것만 해도 한량없는 공부입니다.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절로 정과 혜가 밝아집니다' . 이 일보다 더 빠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공부를 멧목의 삿대질에 비유했습니다. 위에서 물도 흐르고 비바람도 치고 할 때, 노 젓고 삿대질 하기가 힘듭니다. 열 삿대쯤 가다가 조금 쉬면 스무 삿대쯤 물러납니다. 아이구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또 한참 올라가다가 쉬면 도로 후퇴해 버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중단하겠지만, 끌끌내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바람도 자고 물도 장애가 적을 때가 있어서, 그 한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은 가만히 삿대질만 해도 줄줄 흘러갑니다.

그러니 잘 될 때보다 안될 때가 소중하니 좌절하지 말고 '이길 뿐이다. 세상살이는 부업이고 참선은 본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념만년(一念萬年)' 즉, 한 생각이 만년 가도록 그렇게 하면 염라대왕도 함부로 못 잡아가고 부러울 게 없습니다. '역대 조사가 어찌 나를 속였을 것인가?' 이 말을 믿고 정진하십시오.

중국 당나라 익주 땅 보당사(保唐寺)에 신라의 왕자 출신으로, 마조 선사에게도 가르침을 주셨던 무상 스님의 제자인 무주(無住, 714~774) 스님이 주석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사를 찾아왔으며, 도를 묻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무주 선사는 널리 가르침을 폈지만, 다만 '무념(無念)'을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승상 두홍점(杜鴻漸)은 유, 불, 선 삼교에 능통해서 <기신론> 논서 두 권을 지은 분인데, 선사를 흠모하던 중 사신을 보내어 공혜사에서 법문을 청했습니다. 승상과 문무백관이 절에 모이게 되었는데, 상견례를 한 후 승상이 여쭈었습니다.

"제자는 스님께서 '무억(無憶), 무념(無念), 무망(無妄)' 의 삼구법문(三句法門)을 전수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무억, 무념, 무망은 일구(一句)입니까, 아니면 삼구(三句)입니까?"

"기억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계(戒)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선정(定)입니다. 망녕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慧)입니다. 만일 한 마음이 생하지 않으면 바로 계정혜가 갖춰지게 되므로 하나도 아니고 셋도 아닙니다."

두홍점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엇을 일러 불생(不生)이라고 하며, 무엇을 일러 불멸(不滅)이라고 하는지요? 어떻게 하면 능히 해탈할 수 있겠습니까?"

"외부의 경계에 대해 생각이 미치지 않으면 '불생' 이라고 합니다. 또 불생하면 당연히 '불멸' 합니다. 이미 '불생불멸' 하면 해탈하게 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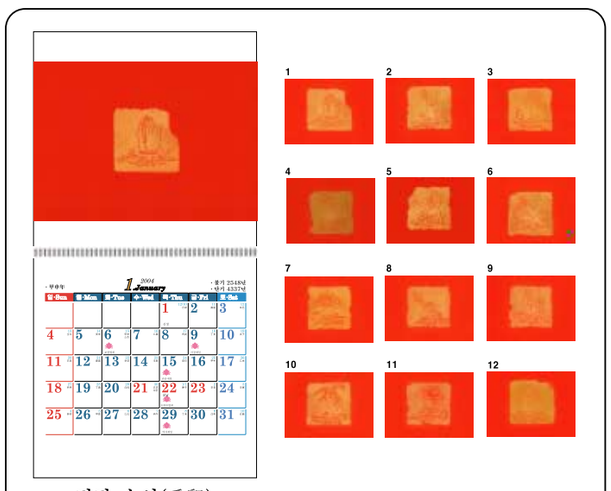
이어 무주 선사는 두홍점의 <기신론> 논서는 자기 목소리가 아닌 남의 소리에 불과하며, 불법이 아니라고 조목조목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에 승상은 크게 감명을 받고, "스님이야말로 명안종사"라며 찬탄하

화두 안 풀린다 좌절마세요
날이 가고 달이 깊어지면
저절로 '정과 혜' 밝아집니다

스님!! 좋은 달력을 추천합니다.

매년 똑같은 달력에 식상 하셨습니까?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 최고급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마하몰 www.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전각 수인(手印)
310㎜ ×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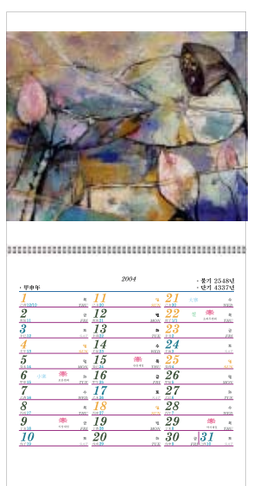
전각 금강경
310㎜ × 310㎜



석불(石佛)
310㎜ × 310㎜



사진 연화(蓮花)
310㎜ × 310㎜



유화 연화(蓮花)
310㎜ × 310㎜

※100부이상 주문시 사찰명 무료인쇄

마하몰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B1 T : 02)732-1520 입금계좌: 농협 053-12-113210 (예금주 하동규)

기자가 본 근일 스님

장대비가 내리던 지난 8월 30일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전국에서 찾아온 100여명의 불자들은 이날 저녁 9시부터 시작된 부석사 주지 근일 스님(고운사 회주)의 법문을 들은 후 새벽 3시까지 철야 참선을 했다. 23년간, 한번도 쉰 적이 없다는 부석사 월말 철야정진은 근일 스님의 원력과 신도들의 공부 열기가 조화를 이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근일 스님은 많이 쾌유한 상태였지만, 일체 외부 법회와 인터뷰를 사양하고 계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째 상좌인 자현 스님을 찾아갔다. "가까이서 시봉한 스승은 어떤 분이신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지현스님은 시원스레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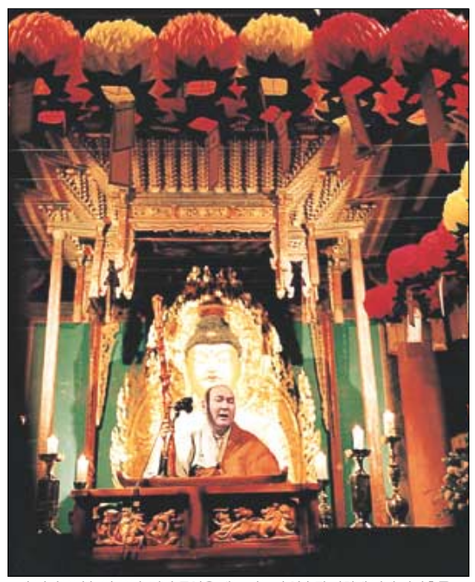
"한마디로, 스님 같은 스님이시지요."

더이상의 찬탄은 없을 듯 싶었다. 선사이자 율사이면서도 고운사를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의 불교세를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근일 스님은, 스님들이 이판과 사판에 걸림없이 신도들의 시주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수년 전 송광사 방장 추대를 사양한 것도 경북 지역의 열악한 불교 토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한다. 30 세 초반, 해인사 선방에서 100일 용맹정진 중 견처를 얻은 근일스님은 구산스님의 인가를 받고 법제자가 되었다. 경봉, 성철, 전강, 향곡 선사 문하에서 주로 공부하였으며 영천 묘각사에서 10년간 보임(保任) 공부를 한 후 1980년 고운사 주지를 맡으면서 '하화중생'의 길에 나섰다. 1 만여평의 절 땅에 제자들과 직접 농사를 지으며 불사를 쉬지 않고 해 온 근일 스님은 늘 제자들에게 '결제철엔 용맹정진하고 해제철엔 울력하고 포교할 것'을 가르친다.

결제땐 용맹정진, 해제철엔 울력·포교 강조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근일 스님은 60년에 사미계, 67년에 비구계 및 보살계를 수지했다. 80~92년 고운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92년부터 부석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비가오나 눈이 오나, 병이 들었을 때도 반드시 약속된 법회에 나와 사자후를 토하는 근일스님.

고 예배하였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이처럼 무념이 되어야만 하기에, 알음알이가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식심(識心)이 있는 한 고통을 받으니까요. '정진한다는 생각' 조차 있다면 망념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보배가 아닙니다. 말과 생각이 많으면 더욱 상응치 못합니다. 말과 생각이 없어지면 일념이 불생하여 만법에 허물이 없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해탈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할 뿐입니다.

무념청정(無念淸淨)이 선(禪)임을 믿고, 계 · 정 · 혜 삼학으로 탐 · 진 · 치 삼독을 고쳐야 합니다. '경계를 대해도 움직임이 없는 것(對境不動)'이 선정입니다. 선정을 통해 힘을 얻어 자재한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별심이 다 떨어져야 합니다. 생사와 유무, 고저, 장단 등 온갖 시비가 들이 아니어야 깨칩니다.

그러면 행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 · 해 · 행 · 증(信解行證), 즉 깨닫기 위해서 믿고, 알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삼학을 잘 닦아야 합니다. 삼학이라는 것은 계 · 정 · 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정무염(淸淨無染)이 계요, 대경무동(對境無動)이 정이며, 득자재력(得自在力)이 혜라' 했습니다. 오늘날 지식인은 많은데 지혜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신도의 초청으로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99%의 국민이 불자인 일본의 절에서 이타심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린 아이는 13곳, 남자는 42곳, 여자는 33곳 등 모두 88 곳의 절을 참배하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도 1주일이 걸리는 순례길이지만, 이 순례 동안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절에서는 내 가족, 이웃, 국가, 세계가 모두 잘 돼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고 일깨워 줍니다. 절에서 국민들에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의 이타심을 가르치니 선진국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활 자체가 절 생활 그대로 이니, 근검하고 절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10억불 상당의 음식쓰레기가 낭비되는 것과 비교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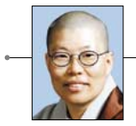
아침 저녁 참선·공부하면서 다시한번 돌아보는 삶 사세요

그런데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1등 해라. 남보다 앞서라. 맨날 극단적인 데모나 하니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사장은 종업원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고, 종업원도 사장이 있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간, 나라와 나라 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타심을 길러줘야 함께 잘 살 수 있는데, 교육이 망쳐 놓았습니다. 대통령부터 회사 사원들까지 모두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인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일본 여행시, 나를 안내해 준 의사가 내 주소를 묻길래, '미타국 석가도 보살군 문수면 지혜리 무착사 겁외인(劫外人: 세월 밖의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의사에게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선정을 익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정을 닦아야 수행도 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여기서 공부를 끝내지 말고 집에 가서도 법당에 앉아있던 마음으로 끊어짐 없이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가나 오나 매일 경계에 끌려서 시비나 하며 지내지 말고, 보기는 보되 본 바 없이 보고, 듣기는 듣되 들은 바 없이 들으란 말입니다. 화두를 항상 관하면서 의정을 일으키고 가나 오나 이것을 본업으로 알며, 다른 것은 부업으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찾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에 만날 때는 더욱 공부가 되어 오시길 기대합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진명스님의

스님이야기

도현스님

율챙이에게 삼진 아웃당한 스님, 네 평도 안 되는 작은 토굴을 우주보다 더 넓게 쓰시는 스님, 인연되는 불자들이 조금이라도 부처님 가까이 다가앉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스님, 일찍 출가해서 제방 선원을 여의지 않고 수좌로 정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스님의 생활 저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회향하는 삶의 향기가 배어있는 스님, 이렇게 스님을 생각하면 수행자로서 여러 가지로 닮고 싶은 부분이 많은 스님이시다.

그런 도현(道玄)스님과의 인연은 참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출가하기 전 스님께서 송광사 선원에서 정진 중이실 때 스님을 처음 뵈었으니까 말이다. 처음 찾아간 불자들한테 큰법당을 비롯해서 각 전각에 모셔진 주불과 보살들에 대해서 어찌나 자상하게 설명하며 안내해 주시던지 내가 출가하고 난 후에도 불교 상식을 공부하는데 기초 지식으로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수좌로서 지내 온 시간만큼 진하지도 연하지도



그림 · 문병성

않은 스님의 향기는 처음 마음을 내서 사찰을 찾는 초심자들의 서먹하고 어색한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자상함으로 스며난다. 나도 그래서 대중처소에 있을 때는 처음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색하지 않고 다시 사찰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자상함으로 대하고 싶었다.

스님께서는 지리산 자락에 작은 토굴을 손수 지어서 상주하신다. 일꾼 한 사람과 함께 터를 고르고 손을 맞춰 지은 네 평에 불과한 작은 토굴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수행자로 정진하신다. 안거 기간이 되면 선원에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시고 해제후 토굴로 돌아오면 스님 거처를 간간히 찾아오는 후배들에게는 선배로서, 불자들에게는 따뜻한 선지식으로서 정진하는 동안 부딪혔던 크고 작은 마장이나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좋은 길잡이도 되어 주신다. 그리고 스님은 항상 수행자는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하신다. 그동안 우리 불교는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 회향하는 일을 꼭 수행과 더불어 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고 보니 스님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불교학생회 지도 법사를 하실 때부터 세상의 병고를 치료할 대의왕을 꿈꾸는 의학도들이 방학이 되면 의료혜택이 없는 벽지나 낙도에 의료봉사를 떠날 때 약값을 보태면서 시작된 선재회라는 모임을 이끄신지가 20년이 넘는다. 그 선재회를 통해 소리 없이 요란하지 않게 주변을 돌보시고, 스님이 상주하시는 아랫마을 어려운 학생을 찾아 장학금도 보태시고, 복지시설을 갖추지 못해 정부나 단체들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운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찾아 힘닿는 대로 도우시고, 불자들이 중요한 마음공부 또한 게으르지 않도록 지도하는 일을 꾸준하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스님께는 결제와 해제가 따로 없는 셈이다.

나는 아주 가끔 도심생활에 마음이 팍팍하고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면 스님이 계신 작은 토굴을 찾는다. 스님의 정진 시간에 방해될까 많이 고려해서 찾아가지만 나에게는 큰 힘이 되는 시간이다. 자연에 묻혀서 온 산천을 다 품고 사는 스님께는 친구가 많다. 주변에 어울려 사는 모든 새들과 다람쥐, 청솔모, 곤충들까지도 스님께는 말벗이 된다. 언젠가 스님은 율챙이한테 삼진 아웃당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 스님의 작은 토굴 옆에는 고소나 깨며 열무 같은 채소를 심는 작은 텃밭도 있고 정말 손바닥만한 미나리꽝도 있다. 스님은 그 작은 미나리꽝 옆에 수련을 심을 수 있는 연못을 만드셨는데 연못이 생기자마자 율챙이들의 본부가 되었단다. 그래서 그 작은 율챙이들이 다리도 생겨나기 전에 어찌나 수련 잎사귀를 갉아먹는지 꽃봉오리도 채 맺기 전에 수련이 다 사라져 버렸단다. 그렇게 첫 해에 꽃을 보지도 못하고 율챙이 수에 완패를 당하시고 그 다음 해에는 꼭 수련 꽃을 보리라, 꼭 율챙이를 이겨보리라 다짐하고 심으셨단다. 그리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알을 낳고 올기시작해서 알이 올챙이가 되기 전에 올챙이를 큰 들통에 담아 산아래 논에다 옮겨 주었는데 어느새 또 다시 찾아와 수련을 몇 일만에 다 먹어 치우더란다. 그렇게 삼년을 스님은 올챙이들의 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삼진아웃 당하셨다고 하셨다. 그 후 두 손 번쩍 들고 수련을 스님 방 앞에 정말 손바닥 만하게 연못을 장만해서 옮겨 주셨단다.

선재회 이끌며 이웃돕기 20여년

율챙이와 3년 '씨름' 삼진 아웃!

참 따뜻하신 분이다. 지나는 세월이 깊은 산처럼 깊어질 수록 수행자로서 수행자에게 존경받는 시원한 향기 간직하시길 감히 두 손 모은다.

■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 활 용 범 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신소재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별도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칠 보) | 내호함 (도자기) |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을 평안하며 안전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추모함 선택은 올바르게!

● 납골당이 공원화 되어가고있는 과정에서 문제가발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처럼 가족과 참배하러 왔는데 심한 악취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고 마지못해 참배를 올리던 일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악취나는 유골을 그냥 방치해 두는것이 참된 효(孝)일까요? 이미 악취가 생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악취와 벌레까지 생깁니다.
2. 이화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서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회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램입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가볍고 강하며 외관또한 미려한 이화사의 납골추모함이 있습니다.
이화사의 납골추모함은 납골당이 붕괴되더라도 강한 견고성으로 고인의 유골이 유실됨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을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하실 수 있습니다.

외관의 문양은 원하시는 문양 또는 글씨를 삽입 할 수 있으며, 문양 삽입후 코팅 처리되어 오래도록 봉안 할 수 있도록 정성들여 제작됩니다.

이화사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찍은 궁수자리 별들. 자료제공=종이거울

별들과 '진리'를 대화해요

이시우 천문학 박사 출판 기념회 강연

별들의 세계도 인간세상과 비슷

평생 소유·집착·욕심없이 살다가 에너지 다하면 조용히 소멸할 뿐



◇9월 7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출판기념 강연을 하고 있는 이시우 박사. 사진=박재완 기자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을 관찰하는 천문학자와 인생과 우주의 근원을 찾기 위해 노력한 부처님이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지난 9월 7일 안성 도피안사에서 열린 <천문학자와 붓다의 대화> 출판기념 강연에서 이시우(65,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박사는 "이 책은 별의 생성과 소멸을 통해 불교의 우주관을 설명해 보고자하는 시도"이며 "천문학적 세계와 불법의 세계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책이다"고 설명했다.

천문학도로, 40여 년간 천체망원경을 두 눈 삼아 우주를 관찰해 온 그가 우주와 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찾고자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착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안성 도피안사에 기거하며 원고 집필에 몰두한 그는 이 책을 통해 우주의 질서와 가르침이 불법과 너무도 닮아 있음을 새삼 깨우쳤다고 고백한다. 책 곳곳에 인용된 <금강경>과 <화엄경>, <열반경>, <유마경> 구절들은 그가 '천문학과 불교의 만남'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라 할 수 있다.



'천문학자와 붓다의 대화'

이시우 지음

종이거울 / 1만8천원

"경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주 법계를 아우르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별들에게서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별들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는 매우 비슷합니다. 단지 별들은 태어날 때 평생을 살아갈 양식을 지니고 나오기 때문에 소유나 집착, 욕심이 없다는 것이 인간과의 근본적 차이입니다. 우리가 별을 통해 배워야 할 점도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은 지난 세대가 흘뿌린 잔여물로 생성되고,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모두 소비하면 조용히 소멸하는데, 이러한 '주고받음'의 관계를 인간관계에 비추어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이라고 그는 말한다.

"별을 보는 것 자체가 자신의 불성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 부처', '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마음의 눈'으로 별을 바라보고, 거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자 한 노력을 1장 '별의 세계'에 담았다면, 2장 '은하의 세계와 우주', 3장 '태양계의 세계'에는 천문학 이해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기 쉽게 풀이해서 실었다.

"해변에서 가까운 곳을 바라보면 물결이 일렁이고 파도가 부서지는 것만 보이고, 먼 곳을 바라보면 잔잔한 수평선만 보입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부딪치는 소소한 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저 먼 곳의 별들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생멸 속에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안성=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선우논강>(선우논강 엮음, 선우도량, 값 1만원)= 조계종의 토론수행모임인 선우도량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초기불교 승가의 수행과 수행환경', '간화선과 위빠사나, 무엇이 같고 다른가'를 주제로 개최한 6회 및 7회 선우논강의 기조강연과 발제문, 대중토론 녹취문을 담았다.



<불교만화이야기 7권>(불교만화연구소, 값 3천원)= 지난 7월 창립 1주년을 맞은 불교만화연구소가 <불교만화이야기> 7권을 펴냈다. 삼배와 고두례를 배워보는 '만화로 풀어보는 불교교리', 현각 스님 인터뷰 '참 나를 찾아서', '생각해보는 불교카툰'과 '틀린 그림 찾기' 등이 실려 있다.



<힌두교>(스가누마 아키라 지음, 문을식 번역, 여래, 값 1만1천원)= 일본 동양대학 학장을 역임한 스가누마 아키라 박사가 쓴 <힌두교>는 인도문화의 기반을 이루는 힌두교의 특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 개론서다. 힌두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발생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지, 힌두교가 인도인들의 생활과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살펴본다.

알 림 437호 '새로 나온 책'에 소개된 <성철스님의 무소유>(고수유 지음, 리더스)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출판사측이 전량 회수·폐기한 책임을 알려드립니다.

티베트인의 진솔·지혜로운 삶

'티베트 우화'

오코너 대위 채록

청어람 미디어 / 8천5백원

티베트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를까. 달라이라마, 포탈라궁, 오체투지, 조장(鳥葬)… 등. 티베트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듯 불교와 관계되는 신비스런 이미지들을 떠올린다. <티베트 우화>에 실린 22가지 우화들은 신비화된 티베트의 이미지들을 떠올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티베트에 접근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 책은 티베트인들 사이에서 전해져온 옛 이야기를 1902년 '티베트-앵글로 협정'을 위해 티베트로 날아간 영국의 오코너 대위가 채록해 엮은 것으로 티베트인들의 진솔하고 지혜로운 삶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돼 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산토끼, 호랑이, 원숭이, 거북이의 이야기부터 티베트에서만 볼 수 있는 야생 당나귀 캉의 이야기들이 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생쥐에 비유한 고달픈 티베트인들의 삶의 모습도 소개했다. 이 가운데 티베트와 불교의 색채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소박한 이야기들을 1부로, 티베트 고유의 문화와 역사성이 짙은 내용을 2부로 묶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하라"



"감옥에서 벗어나기 전에는 너무도 힘겹고 막막했었는데 막상 벗어나고 보니 참으로 간단한 것이 자신을 옭아매고 있었고, 자신을 가두어 놓았으며, 모든 길을 가로 막고 있었다. 이렇듯 내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오로지 내 자신의 마음에 있었다."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은 (사)'밝은세상 명상아카데미'의 이사장인 혜봉 법사가 90년에 서암 스님에게서 '무(無)' 자 화두를 받은 후 전국의 제방선원을 비롯해 동남아 불교국가를 만행하며 얻어낸 수행의 기록이다.

'삶을 바꾸는 5가지 명상법'

혜봉 법사 지음

불광출판부 / 9천원

이 책은 '관법명상', '진언명상', '절명상', '염불명상', '화두명상' 등 5가지 명상법으로 분류돼 있다. 저자는 '관법명상'에 대해 생각을 그치고 분별에서 벗어나 자신을 끝없이 관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외에도 이 책에는 일념(一念)이 되도록 소리에 집중하라는 '진언명상', 절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이 비워짐을 느낀다는 '절명상', 오직 염불소리만 남을 때까지 쉬지 않고 염송해야 깨달음이 전해진다는 '염불명상'이 소개돼 있다.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나는 여성의 몸으로 붓다가 되리라	비키 매킨지	김영사
2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궁리
3	마음만 먹으면 다 된다.	우승택	장승
4	파드마 삼바바	백이제	민음사
5	영원한 대자유인을 읽고	청봉스님	경서원
6	시공불교사전	곽철환	김영사
7	더 오래된 과학, 마음	허버트 벤슨 외	여시아문
8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스님	시공사
9	티베트 금강경	까말라쉴라	도피안사
10	산중일지	현 칙	지영사

도서 안내 : (02)737-0695

인터넷·전화 도서 주문
yosiamun.com
책방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

현정 스님의 우리말 염불참선
그리움의 노래
그리움의 노래 3,692글자 + 선근인연가 824글자 + 부모은중가 996글자 + 불전참회가 623글자 + 회향산회가 752글자를 모두 합해 6,887글자로 한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당 125글자를 염불했습니다. 55분 동안 장엄하고 아름다운 염불의 세계가 펼쳐지면서 한권의 책 6,887글자는 모두 염불테이프에 녹음되었습니다. 그리움의 노래는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법문! 이와 같이 신명나는 염불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이 법을 전하세요 /
테이프에 녹음된 내용
● 앞면 : 그리움의 노래 -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부처의 세계가 어떤곳인가를 알게하고 염불참선의 진미를 들려줍니다.
● 뒷면 : (1)선근인연가 - 민족과 국가의 인연에서부터 고향. 이웃 가족의 인연이 맺어지기까지 인연의 고리를 밝혀주는 노래입니다.
(2)부모은중가 - 부모! 오늘의 우리들은 그 존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식이면 눈물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절절한 은혜의 노래
(3)불전참회가 - 참회.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노래합니다.
(4)회향산회가 -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또 참아라! 부처님은 왜 우리들에게 그토록 인욕을 당부하셨을까요? 들어보면 알게됩니다.
● 책+테이프 = 5천원 / 입금온라인 : 우체국 501023-01-000379(금산정사)
※ 단체주문환영. 법보시 하실 분은 주소 알려주시면 직접 우송
신청전화 (061)843-8822 금 산 정 사

납골당 설치 및 운영방법 안내
사회문제로 대두된 묘지 문제의 해결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한 '화장 장려 정책' 이 효과를 보게 되어 대부분 국민들이 화장 문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인정함으로써 점차 화장을 하는 수요가 늘어나지만 아직 납골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탓에 납골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납골문화발전과 사찰 납골당의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저희 장안낙원에서는 획기적인 "사찰 납골 활성화 사업"을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참여 범위]
• 납골(추모)당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찰
• 납골(추모)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찰
• 납골 시설 설치부지가 협소한 사찰
해결방안
[장안낙원 지원사항]
• 납골당 시설 및 관리 운영에 대한 노하우제공
• 각종 법률적인 인허가 문제 해결
• 최고 시설의 안치단 저가 보급
• 각종 제사 유치로 부대수입 기대
초기 기획에서부터 납골시설 허가, 설치공사, 신도확보, 납골당 운영까지 책임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의 : 031)901-1954, 017-755-1954, 011-276-2135
■ 주 최 : 장안사 장안낙원 ■ 협 력 : 한국납골문화연구원

불교용품 전문 쇼핑몰
maham@ll.co.kr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생활불자정보

▷ 광고문의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0×4.2)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증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구인 구직

49재, 천도재, 생전 예수재, 천수, 바라, 오공양, 작법 등 각종 행사에 임시로 염불 스님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십시오
011-9209-5691
범음범패, 제의식, 염불, 바라춤, 나비춤 배우실 스님 연락주십시오

부전 스님 모십니다
▷ 창 원
011-735-8887

기도 스님 구함
062-269-6535

비구니 부전스님 모 십 니 다
▷ 경북 칠곡군
016-521-0003
054-975-0003

비구스님(60세이상) 공양주보살님(55세 이상)모십니다
02-408-1368
02-408-9368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천도재 구병시식 수자령 영가천도
● 수시 접수 中
● 수자령 영가천도재는 9月예정
▷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02)3391-8523
011-9002-8523
약천사 자운 합장

부전 스님 모십니다
(비 구)
055-385-4111

만 58세로 남은 여생 즐겁게 함께 사실 남자 분을 찾습니다
생활의 여유가 있는 분으로써 넉넉한 마음씨를 가진 분, 같은 불자, 고향이 이북이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02-732-1522

부전 스님 모십니다
▷ 인 천
032-435-0478

비구니 스님만 보세요
1. 사정상 병원을 못 가시는 스님
2. 병원에서도 병이 잘 낫지 않는 스님
3. 자유 정진 하실 스님
4. 걸망을 풀고 편히 쉴 곳이 없는 스님
5. 매월 보시 지급합니다
서울 불광동 북한산하 심우선원
02-357-8090 / 011-9870-5060

범 패 모 집
초급반 : 이침셋송, 아침도량, 상단, 중단예불
중급반 : 관음의식, 짓는소리, 거불 유치
상급반 : 천수바라, 태징 치는법, 복청게, 도량게
031-865-4893 / 011-661-9119
장소 : 동두천 대원사

자연 친화적인 토탈 장례 시스템
(주)자유로 청아공원
017-239-8488

전통 의식 행사에 스님 필요하신 곳
- 전통의식 각종 행사
- 천도재, 시식, 다비의식
- 기타 불공 등
02-939-3327
범음,범패, 제의식, 바라춤, 나비춤, 염불 배우실 학인모집中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위장약을 불자님들께 원가에 드립니다
소화, 복만, 위장, 설사, 하복통, 구역질, 소화 계통 일절, 오래된 위장병 자신 있음
1개월분 5만원 대도한의원
011-392-4984

사찰 안내
● 위 치 : 부산 광역시 소재
● 부 지 : 1200평(종교용지)
● 법 당 : 40평(목조, 단청)
● 요 사 : 60평
● 가 액 : 3억 6천만원
● 특징 : 도심에 위치한 전통 사찰로 포교지로 적합함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소재
● 법당 : 50평(방2개)
● 보증금 700만원, 월 15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 특징 : 도심 번화가에 위치한 아주 좋은 포교당임

좋은 인연됩시다 - 동 진 불 사
서울 ☎ 02)722-8968
대구 ☎ 053)782-5504
H·P 018)689-0455



명 당
탐지기 관룡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함
www.kbs.cc

역 착
동영상 강의
www.kbs.cc
3개월분 7만원
속성확실한 교육. 자격증 수여.
명당 탐지기 관룡자 판매
월간역학 02)2264-0258

눈
• 안구건조, 눈물, 충혈, 피로, 눈꼽, 눈뿌심, 희미함
• 이물감, 시력저하, 시신경 개선, 활성산소 제거
• 다른 질병으로 눈이 나빠진분, 눈 수술전후 회복
• 물자, 학생, 직장인, 운동선수 등 눈을 많이 쓰는 분
일본특허: 2790212 식약청HSK: 2106909099
미국특허: 5382714 상표출원: 2002-5278069-80
주문상담 : 눈밝은 세상 (02) 2237 - 8004
인터넷 주소 : 눈밝은 세상(한글로 5자만 치세요
제조원 : 日本 (주)MERCURY-MK(완제품수입)
전국 지사 대리점 모집



"부처님 등불" 수공예 양초
◆부처님 등불 특징 : 안정성과 그을음이 없고 30초 간격 마다 촛불이 흔들리는게 특징인 세계적인 특허 제품입니다.
◆색 상 : 흰색, 자주, 청색, 노랑, 옥색 외 다수
※ 원하시는 모양과 규격에 맞추어 하실경우 별도 비용 추가 됩니다.
전국 불교용품점에서 구입가능
● 물에 뜨는 아로마 향기 양초
– 향기로운 마음을 전합니다.
문의전화 및 취급점 상담
가나공예양초 서울시 도봉구 쌍문 2동 81-119번지
사무실 02)996-8830 / 공장 02)997-2801

오산 선생의 사주학 비결 강좌



♠ 핵심강의내용:
–용신을 확실하게 잡을수있는 비결
–사주구조의 좋고나쁨 판별 비결
–육친분석 및 대.세운 해석 통변술
♠ 3개월 완성 수강료: W820,000원
(오산선생의 명리학 비결 교재대 포함)
♠ 매주 2회 수강/오전, 오후, 저녁반
♠ 수강신청:수시접수
오산팔자심리학 연구소
(2호선 대림역에서 도보 10분거리)
(02) 831-0055/011-208-0051
www.sazoopalza.com

성 수 철 학 원 (학 인 모 집)
■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습 ■
▶ 무식자도, 공부해도 해도 안되는분 한달수강 하면 역학 정통하여 환하게 개안(開眼)됩니다.
(단체는 출장강의 가능)
▶ 눈치 안봐도 돼요, 다 맞으니까~
▶ 사주, 산수, 작명, 궁합, 택일, 신병 모두 100% 적중
▶ 불자님의 포교 일환(방편)으로 최고 (불교 교리로 푼다)
▶ 전국 일원, 제자 150명 활동중 임.
▶ 전화 감정도 환영합니다(신속 정확)
▶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시장 네거리 (명당약국 3층)
053)472-4784. 018-531-2237

志 晛 易 理 學 硏 究 院
檀園門下生 韓 恩 炅
◆자연오행과사상체질&수지침시술법강의
–오장육부의 기맥혈과 장기 복진법. 맥진법의 자의관리
◆단원역리학 강의(초급~연구반)
–이석영 선생 수제자 단원 이병열 선생의 정통 학문
◆생활상담 · 작명 · 택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18
현대기림 오피스텔 1004호 (강남역 3번출구)
www.지현역리학연구원.wo.to
(이달의 건강메모)
02)2243-9598. 018-470-6314

다 슬 기
지방간 · 간경화 · 눈의출혈 · 신장



<다슬기에서 직접내린 다슬기>
● 특 징
강원도 동강인근의 맑은 물에서 채취한 다슬기만 선별하였습니다.
전통적 항아리 제조법으로 다슬기 자체의 냄새를 최소화하여 다슬기 자체의 성분을 유지
※ 직접 방문 환영합니다.
033)747-4830 치악산 유정암

수인작법 사주팔자
강의와 교육으로만 성취되었던 수인작법이 수수리 수인작법 책으로 발간되어 나왔습니다
■ 자신과 인연된 모든 수치에 대해 여러분들은 이 책 한권으로 인해 눈밝은 이로 다시 성장될 것입니다
■ 우주의 조화를 품고 있는 천리도수
■ 천기로만 묻혀있던 신비의 수치세계를 열어보입니다
※공부를 원하거나 책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로 연락주십시오
※조계사 가까운 곳 [책방 여시아문]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금주: 이광래 (국민 093-21-0592-051)
031)633-1517. 016-213-5451

생 활 불 자 정 보
24시간 광고접수 받습니다
"한밤중이나 휴일에 광고 접수가 가능할까 ? 시간이 없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광고접수 시간을 놓치셨던 분들 !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생활불자정보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붓다뉴스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광고접수가 가능해 집니다.
www.buddhanews.com

2002년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02)737-0090,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2002년 이전 합본집은 50,000원(발송비무료) 한정 특가 판매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토종오가피 5개 신문 히트상품 선정!
소비자들이 먼저 확인한 우수한 품질, 다시한번 인정받았습니다.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5관왕! 수신토종오가피는 다릅니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신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농장견학회 및 재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일간스포츠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한국일보 2003 히트상품 식음료부문 선정
★ 경향신문 2003 경향히트상품 선정
★ 서울경제신문 2003 서경벤처히트상품 선정
★ 스포츠 굿데이 2003 굿브랜드 대상 선정

※주의 : 저희 수신토종오가피가 유명해지자 원료를 성광수씨로부터 구매해 만들었다고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속지마십시오! 국내최대오가피 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토종오가피원료는 전량 수신토종오가피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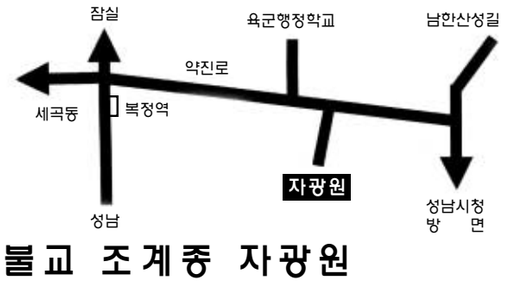
5대 히트상품선정기념. 선착순 고객사은대행사!
지금 전화주세요. (02)454-3733

기도처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기도처 자광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 · 식 · 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타 실버타운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표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5평) 24실 (각실 인토폰 설치)
→오락실, 체련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 2 물리치료실, 목욕탕, 이 · 미용실, 법당, 식당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포항 / 법당 : 17평 / 요사 : 90평 / 부지 : 1,10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부산 / 법당 : 36평 / 요사 : 130평 / 부지 : 755평 / 가액 : 25억
- 위치 : 전남 순천 / 법당 : 20평 / 요사 : 45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3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천도재, 점안식, 각종 행사에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사찰 · 수련원 안내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서울에서 1시간 10분 소요)
- 전 3351평→통나무 청기와 주택 25평 1채
- 가용면적 2천평 추가(총 5500평)
- 배산임수(국유림과 밤나무숲 그리고 개울)
- 4차선 계곡물 따라 5km (아스팔트 포장도로)
- 가액 : 4억 5천만원(급매)

031)771-7110/011)531-5562

사찰(급) 안내

- 60평
- 시내 한복판. 시장 입구
-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 목동사거리
- 시설비 : 답사후 결정

02)2645-2445
011)9947-4458

토굴 별장 펜션 안내

- 위치 : 남 덕유산 자락
- 부지 : 1,631평
- 가옥 : 신축 황토 기와집
- 가액 : 5억3천만원(대출 가능)
- 특징 : 맑은 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 주인 직접 살고 관리해 옴

016)367-211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은1동 홍제역 부근
- 평수 : 40평
- 법당. 방 2개, 주방 1개
- 전세 6천2백만원(시설비 포함)
- 즉시 법회 가능

02)3216-1118
016)9590-9095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 가평
- 대 지 : 100평
- 법 당 : 30평
- 요 사 : 46평
- 가 액 : 1억8천
- 위 치 : 서울
- 대 지 : 25평
- 법 당 : 20평
- 요 사 : 5평
- 가 액 : 1억매매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통영 인근(섬)
- 대지 : 100평
- 법당 : 30평(한옥기와)
- 요사채 : 17평
- 가액 : 1억8천만원

※ 불심 깊은 곳(운영 잘됨)

011)9677-2724

사찰 안내

- 노원구 수락산 부근
- 당고개역 3분거리
- 부지 : 약 340평
- 건물 : 40평
- 법당 따로
- 가액 : 3억 2천만원

016)274-3338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도 포천 경기도 승마공원 입구
- 부지 : 1,293평
- 건물 : 53평, 25평, 17평 3동
- 서울에서 50분거리
- 특징 : 산세수려, 전망좋음
- 가액 : 3억 8천만원

031)533-2420

포교원 안내

- 일산신도시. 주엽전철역 150m
- 25평. 방1. 3층건물에 3층
- 시설 A급.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바닥은 전기온돌판넬
- 철학관으로 적합
- 2천, 70만원. 시설비 : 2천만원

031)907-0603

포교원 안내

- 위치 : 광진구 5거리 코너
- 평수 : 75평. 3층
- 보증금 3천만원, 월 170만원
- 보증금+시설비 : 5천만원
- 매월 정기법회 즉시 사용
- 삼존불, 약사여래+지장보살 ; 10년이상 포교지
- 법당 요사채 분리형. 도시가스 시설완비

02)444-391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내 강북지역
- 대지 : 160평
- 법당 : 50평
- 요사 : 200평
- 양도가 : 10억

※ 불교어린이집 운영중 유서깊은 도심 사찰임

- 위치 : 서울 근교
- 대지 : 70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200평(3동)
- 양도가 : 12억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08-5037/011) 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암자 안내

- 태백산 아래 제일 시원한 암자
- 산신각, 약사전, 용왕각, 지장전
- 별도로 되어 있음
- 대지 83평
- 가액 : 9천만원

033)553-6860
011)368-7653
011)9790-5515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창녕읍 7분거리
- 대지 150평, 요사채 25평
- 법당(목조토기와) 11평
- 교통 편리. 도로 접
- 가액 ; 1억 5천만원

016)652-7547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인천시 최고 요지
- 4층 건물 중 3층. 80평
- 법당 30평, 방4, 공양방1, 목욕탕, 실내화장실
- 보증금포함 5천만원, 월 80만원
- 스님 직접 통화함

※ 스님사정으로 인계함

011)9642-1202
032)546-4121

사찰(급) 안내

- 위치 : 경기 포천군
- 대지 : 약 205평 자터
- 법당 28평
- 산신각 4평
- 요사채 28평
- 조립식 건물
- 창고 6평
- 가액 : 5천5백만원(급매) 보증금 1천만원, 월세 20만원
- 시설비 1700만원→35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자세한 문의사항 만나서 상담. 전화요망

019)335-0821

사찰부지 안내

- 서울 근교(강남 45분거리)
- 부지 : 1500평(1,000평 종교부지 허가)
- 산세수려, 수목울창
- 양쪽에 계곡을 끼고 있음
- 교통편리, 도로 인접
- 서울 근교중 최고의 명당터
- 가액 : 5억5천만원

017)438-3377

사 찰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광역시
- 부지 : 21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150평
- 가액 : 8억2천
- 위치 : 대구광역시
- 부지 : 20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4억3천

※ 사찰(토굴)양도 · 양수 상담 환영

서방불사 011)9851-5952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도봉구(방학역 5분)
- 30평. 2층 시설완벽
- 삼존, 관음, 지장, 약사 등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011)298-2030

사찰(급)안내

- 대구시내 위치좋음
- 2층건물중 2층. 현대식건물
- 법당(2층), 산신각 총 28평
- 요사채(1층) 총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 시설 일체
- 가액 : 3억 5천만원

011)226-2880

사찰 안내

- 위치 : 중구신당동 대로변역 1분
- 중앙시장입구 요지
- 3층중 3층. 25평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700만원

※ 포교에 따른 비법 전수

02)2235-2219
011)9150-2284

사찰 안내

- 위치 : 포항
- 월포, 칠포 해수욕장 중간
- 대지 80평. 1층 22평, 2층 32평
- 별장형 법당, 조립식 15평
- 샤워장 4, 화장실 4
- 심야 전기, 주차 무한대
- 특징 : 스님노후나 휴양처로 최고. 조용한 바닷가
- 가액 : 2억원

011)9372-5977

양도 및 교환(급)안내

- 불교용품 백화점과 교환하실 분
- 암자, 사찰, 대지, 기도터
- 내부방4개-주방, 욕실
- 법당 조성 및 살림 가능
- 답사후 가격 절충

02)478-4334
011)9410-0031

사 찰 (토 굴) 안 내

- 위 치 : 도봉산
- 부 지 : 2000평 사용
- 법 당 : 20평(목조 단청)
- 요 사 : 60평
- 가 액 : 6억원

※ 서울의 명산

- 위 치 : 공주
- 부 지 : 1만8천평
- 법 당 : 20평(임)
- 요 사 : 20평
- 가 액 : 2억원

※진입로 노송 울창

- 위 치 : 충남금산
- 부 지 : 2500평
- 법 당 : 40평
- 요 사 : 40평
- 가 액 : 7억원

◈전국소재 사찰 · 암자 ·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참 인연됩시다 - 정인불사
서 울 ☎ 02)722-8968
대 구 ☎ 053)782-5504
휴대폰 011-707-8204
-(조계사앞 도장전각전문점 02)735-0750 정인사)-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구미 선산읍 부근
- 법당 20평, 요사채 50평
- 부지 : 350평(국유지 100평) 총합계 450평
- 가액 : 8천만원

011)540-3313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150평, 법당 18평
- 삼존불 봉안
- 산신단, 용왕단 각각
- 요사채 2동
- 입주 즉시 법회 가능
- 사정상 급매 • 가액 : 5천만원

055)533-0354
011)845-6182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부항면
- 대지 : 300평. 건물 40평
- 목조 인법당. 마을 종점
- 가액 : 9천만원

054)437-1857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대로변
- 사정상 급매
- 보증금 5백만원, 월 40만원
- 권리금 1천만원

053)566-8203
011)9850-8208

사찰 안내

- 위치 : 부산시내
- 대지 200평이상
- 법당 30여평, 요사채 20평
- 차 진입가능. 포교지 적합함
- 가액 : 4억7천만원
- 주인직접. 소개인 사절

011)883-7856

사 찰 안 내

- 위 치 : 양산
- 대 지 : 95평
- 법 당 : 15평
- 요사채 : 25평
- 가 액 : 9천

※별장형 토굴

- 위 치 : 포항부근
- 부 지 : 약 2,0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80평
- 가 액 : 절충

※ 세계 유명불상 사찰

- 위 치 : 부산
- 부 지 : 74평
- 법 당 : 20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2억

※ 도깨비터의 도심사사찰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51)508-7570 / 018-563-9575

홈페이지 www.boolguk.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절터 안내

- 불사할 도량을 제공합니다
1) 먼저 자상한 전화 문답
2) 일방적인 방문은 금합니다
※ 비구니스님께만 해당됨

구 암 사
041)858-1331

사찰 안내

- 위치 : 자연경관이 수려한 공주 탄천에 있는 절
- 부지 : 1,800평중 대지 478평
- 법당1, 한옥 30평(구)
- 요사 : 황토방 30평
- 가액 : 2억원

011)463-8852
043)264-8220

포교당 안내

- 위치 : 동서울터미널 부근 아파트단지 강쪽
- 최고시설. 포교원사용하실분 찾음
- 보증금 2천5백만원(절충 가능)
- 법당, 방, 주방, 욕실, 화장실

02)2291-0796
019)9108-0909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
- 평수 : 70평(최고시설 A급)
-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 도심속의 최고 포교 적지 (실제 들어간 비용 1억 5천)
- 대작불사 관계로 인연있는 스님께 보시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 집기류 일체 무상

011)9315-120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 법당 20평. 산신각, 용왕각
- 요사 20평. 승방1, 약수물 풍부
- 가액 : 1억 5천만원(절충 가능)

018)555-5733

간(肝) 이 간지간 방경 .... 염간화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回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무주 구천동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回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자료신청 : 055) 963-9583 상담문의 : 055) 355-5626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맡겨놓고 부지런히 뛰라

우리들이 생활하는 그대로가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일체가 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니 나로부터 풀어야 합니다.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모른다면, 눈깜짝할 사이에 다음 생이 되는데 다음 생에도 그 차원에서 또 고통을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몸 떨어지기 전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온전히 고통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49년 동안 설하시면서 "너로부터 너를 알고 너에게서 벗어난다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절에 가서 공을 들여야만 된다는 관념과 습관으로 인해 부처님 법은 절에만 있다고, 항상 그런 생각으로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습을 못 버리는 겁니다. 하루 빨리 그런 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마음으로 이끌어주지 못하고 이론으로만 해나간다면 헛되이 한데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 더욱 마음 도리를 강조하셨고, 또 한마디의 말이라도 한데 떨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밤낮 없이 뛰어야 하는 여러분이 바로 부처이자 중생입니다. 이끌어나가는 마음은 부처요, 몸속에 있는 생명들은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부터 알아야 물리가 터져서 일체를 터득하고 지혜로운 자비가 나오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며, 찰나에 일체 제불이 들고 나심을 증득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모두 한 집안 식구들이니까 잘하든 못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다못해 "밥을 짓는데 왜 안됩니까?"라고 질문해도 좋고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점을 꾸미지 마시고 어떠한것이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사회자: 스님! 외람되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법회에 자주 참석을 못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더 해주신 다음에 질문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스님: 질문하고 대답하는 데서 다 나오는 걸요. 생활이 바로 불교이며, 풀 한 포기라도 불교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편안한 마음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 경전에 의하면 부처님 입멸 후 1천년 뒤에는 말법 세상에 들어가서 그때에는 "미륵불이 나와서 세상을 구제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스님께서는 이 세상에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님: 그건 나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미륵이라고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미륵이라 함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 다시 동쪽으로 오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이 흩어지면 돌아서 다시 나오는 과정이 미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방에는 아촉불을 말하고 서방에는 아미타불을 말하며 지천국에는 지장을 말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으면 지장이자 관세음이요, 깨닫지 못하면 중생입니다. 중생과 부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부처를 모시고 있고 속에 중생들을 잔뜩 안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랍니다. 천도를 시켜달라고 하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지나 않았으면 죽지도 않았을 것을 그랬구나." 하구요. 이것이 참 묘한 말입니다. 이 말은 동방의 아촉불과 서방의 아미타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찰나에 불을 켰다가 찰나에 불을 끄고, 다시 쓸 일이 있으면 또 켜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애가 태어나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른이 되고 늙어서 다시 애로 태어나 자라서 또 어른이 되는 것처럼 돌아 나오는 것을 미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다 놓고 가다보면 홀연히 참자기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그걸 뜻으로 알아들어야지 일일이 따지다가는 자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고 나면 스스로 뜻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뭘 그렇게 따지려 합니까.

▲질문자1: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저희들만 듣기에는 너무나 아쉬운데 미국에 오셔서 좀 오래오래 머무르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법을 설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저희같이 힘없는 사람들보다는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정치가나 교육자, 또는 경제계의 여러분에게 스님의 무상, 무아법을 설해주셔서 그분들이 마음을 돌려서 나라의 삶이나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그대로 이 세상을 부처님의 국토로 만드는 데 보다 시일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스님 같으신 분들이 여러 나라의 국사가 되면 더 많은 이들에게 포교가 되리라 생각하는데, 그런 운동을 전개한다면 스님께서는 그 자리를 맡아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스님: 부처님께서는 국사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으셨어도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삼천대천세계 우주 전체를 한 손아귀에 넣고 중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를 떠나서 그런 능력으로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에는 "스님,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러냐고 대답만 합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켜보나 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체험을 한 후에 와서 "스님, 어쩌면 그 대답이 그렇게도 명언이십니까?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스스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되니 부처님 법은 정말 묘법입니다." 하고 고마워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그 사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했다 네가 했다 할 것도 없으며, 그래서 원력이 있어서 잘되고 원력이 없어서 안된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서로 한마음으로 슬기롭게 굴릴 수 있으니 교수님도 슬기롭게 자유자재하실 수 있습니다. 못 믿지 마시고 그렇게만 실험하면서 체험을 해 보세요. 한다 안 한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햇빛을 쬐기도 하고 말릴 것은 말리며, 경우에 따라서 응달지게 할 것은 햇빛을 가리듯 천차만별인데 말입니다. 천체 물리가 터져서 과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재법입니다. 그런데도 기복으로만 믿고 여기저기 빌기만 할 겁니까? 그런 관념과 습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부처의 행을 안 하고 귀신짓을 하고들 있으니 이 세상에 귀신이 꽉 찰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로부터 너를 알고
너에게서 네가 벗어난다면
모든 것 벗어날수 있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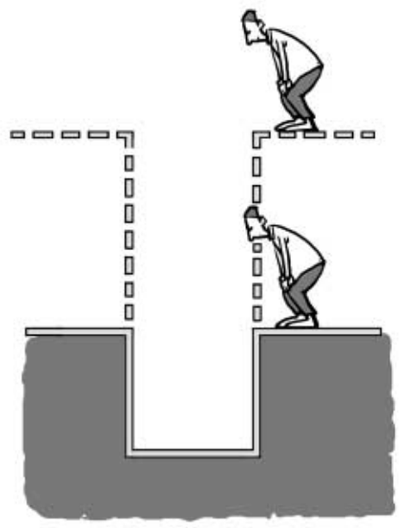
▲질문자1: 오늘날 역사를 보면 티벳의 성자 달라이라마 같으신 분도 계시고 스님 같으신 분도 계시지만 결국은 티벳이 현실적으로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1910년 한일 합방에서 한국이 멸망했을 적에 우리나라엔 도인 스님이 계셨는데 그 무심의 도력으로써 세속적인 약육강식의 정책을 방어할 수는 없었는지요.

▲스님: 그때 시절에는 그쯤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죠.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그만큼 깨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방편을 그렇게만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대는 문화 문명이 꽃피고 사람들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밝고 사회의 모든 상식에 밝은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불교를 기복으로만 믿는다면 점점 힘은 약화되고 말겠지만, 그래도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밝은 눈으로 보되 조그만 것만 보시지 말고 넓게 살펴보고,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한생각 내서 그 순간에 속의 의식들이 전부 바깥으로 나가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게 해야 합니다.

난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래의 공산주의는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먹고자 하는 불교에서 나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공산국들은 본래의 뜻에서 어긋난 사회주의이면서도 독재입니다. 진정한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진짜 맛을 모르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일본에서도 우리의 것을 얼마나 많이 본따 갔습니까. 스님네들의 행전을 보고 각반을 만들고, 오조가사를 보고 앞가슴의 총받이를 만들고, 장삼을 보고는 기모노를 만들고, 발우공양을 본따서는 그들의 밥공기를 만들었습니다.

밥통에 밥을 담아다 놓고 공기에다 덜어서 먹는데 부족하면 더 떠서 먹고 많으면 덜어서 먹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발우공양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들의 역사 문화는 또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가서 자기네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의 영향으로 여기저기 단을 차려 놓았는데, 하다못해 우동 집까지도 단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보편적으로 자기를 깨닫는 근본 수행을 하지 않고 마치 회사에 나가는 것처럼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양복 입은 위에 가사 하나 걸치고는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서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림 · 최주현

▲질문자2: 여기 모인 많은 분들이 어떡하면 육도 윤회를 벗어나서 대각을 이루고 부처가 되느냐 하는 뜻을 가졌다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도 닦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님: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고서 세상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속의 진짜 자기 뿌리와 씨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지수화풍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을 충만히 자기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광대하게 재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심안의 망원경은 한계가 없어서 천체를 탐험하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앞은 자리에서 앞에 끌어다 놓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지 못하시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체험하시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또 한 가지는 숙명통인데 컴퓨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대로 전부 입력이 되어 있다가 하나하나 나오는데 인연 지었던 모든 마음 의식들이 원수를 갚는다, 은혜를 갚는다고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 수없이 나온다 해도 끄달리지 말고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나온 곳에 되놓아 좋게 다시 입력을 시켰을 때 과거에 입력되어 있던 인과응보,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현재 입력시키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거기에는 팔자도 불지 않고 운명도 불지 않고 병고나 액난도 불지 않습니다. 내가 공해서 없는데 어디 붙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섯 가지 여섯 가지가 한 데 합쳐서 돌아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니 주인이자 공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안되는 것이 나올 때는 되게 할 수 있다 하고 믿고 맡기고, 또 잘되면 감사하게 맡겨 놓으며 오직 거기에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물러서지 마세요.

한결같이 그렇게 하다보면 홀연히 밝아져서 팔자운명이 송두리째 무너지니 내 마음이 편안해서 좋고 중생들을 제도하니 좋고, 부처님과 한자리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깨달아지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거기다 맡기십시오. 주인공이 죽는 법은 없습니다. 영원하니까요.

▲질문자2: 수행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 하나의 화두가 됩니까?

▲스님: 화두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내 몸 나온 것이 화두인데 화두에다 화두를 또 불일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화두에다 화두를 거듭 든다면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고 헤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분명한 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음으로써 생각을 낼 수 있고, 생각을 낼 수 있음으로써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정하겠습니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간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군데만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전부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부모일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자식일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되었을 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어느 것을 먹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하며 어느 것을 할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한 사람이 몇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쉴 사이 없이 돌아가면서 바뀌는 겁니다.

▲질문자2: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공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래 살겠다고 하면 그게 착이 되지 않습니까?

▲스님: 어려서 죽건 젊어서 죽건 늙어서 죽건 한 번 죽긴 마찬가지인데 죽는 걸 원통해서 그러

☞16면으로 계속

하루 빨리 기복의 습에서 벗어나야 해요

과감히 놓아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원력이에요

☞15면에서 계속

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모두 놓으라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와 생사윤회도 모두 거기에 맡겨 놓으라는 겁니다. 악과 선, 일체가 다 한군데서 나옵니다. 한군데서 나오는 것이니 자기를 잘 다스려 가면서 맡겨 놓고 부지런히 뛰라는 겁니다.

▲질문자2: 맡기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스님: 이제껏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근본을 믿지 않고 허공을 믿으실 겁니까? 형상을 믿으실 겁니까, 이름을 믿으실 겁니까? 뭘 믿겠습니까? 믿을 건덕지가 있어야 믿죠. 여러분을 형성시켰고, 이끌고 다니며 말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그 장본인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습니까?

▲질문자2: 그러니까 스님과 똑같이 되려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스님: 그래요. 자기 자신을 무조건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조건 따르세요. 그러신다면 여러분이 아주 달라질 겁니다.

▲질문자3: 시심마라는 화두를 잡고 공부할 적에 '시심마, 주인공이 무엇이냐?' 하는 마음 자세로 공부하면 괜찮습니까?

▲스님: 주인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듯이 작년 수박씨를 심어서 올해 수박이 다시 열렸으니 '이게 뭣고?' 하는 것은 이미 시대가 지났다는 얘깁니다. 수박은 그대로 수박이며 수박 속에는 반드시 수박씨가 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고 들어가야지 '이게 뭣고' 하면서 십 년, 이십 년 언제 그러고 있겠습니까? 그냥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박 속에 수박씨가 있다는 걸 믿고 새 봄이 오면 심어서 싹이 나고 수박이 열리면 만 중생을 다 먹이고도 되남아서 끝간 데 없이 먹인다는 생각을 하면 화두다, 화두가 아니다가 불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상에서 어긋나지 않게 질서정연하게 해 나가는데 거기에 뭐가 불습니까?

▲질문자4: 전통적인 선법에서는 화두를 잡고….

▲스님: 화두를 가지게 된 것은 중간에 생긴 법이지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세월에 화두를 준다면 늦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아는 것이 많은데 '이게 뭣고' 하라고 가르치니 그게 먹혀들어 가겠습니까?

▲질문자4: 그럼 저희같이 잘 모르고 처음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맡기는 방법에 있어서 자꾸 이 마음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지요.

▲스님: 때로는 '주인공이 도대체 무엇인고?' 하고 생각하게 되겠죠.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지금 급하니까 무조건 맡겨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자기를 믿으세요. 물러서지 마시고 믿고 맡기는 작업을 하세요. 용광로에다 헌 쇠 모두 가져다 쓸어 넣으면 새 쇠로 생산이 되어서 나오듯이 그런 작업을 하시란 말입니다.

▲질문자4: 그러면 저희가 생활하면서 곤란을 받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그 괴로운 마음을 스스로 이겨 물리치는 거죠.

▲스님: 여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공부하다 보면 괜히 시시껄렁한 것을 가지고 괴로워했구나 싶어지고 또 아무리 괴로워해도 사량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맡겨 놓고 지켜보다 보면 슬그머니 돌아서 현실로 옮겨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자기 주인공이 그렇게 위대한 것을 그제서야 알고 그렇게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렇게 믿고 놓는 공부를 하세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차가 주인이 아니고 운전수가 바로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들 몸은 주인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 다니는 차입니다.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자기를 믿으세요. 잘난 것 찾으러 다니지 말고 자기를 믿어야 합니다. 잘난 것 찾으러 다니다가는 못난 것도 건지지 못합니다. 생활 속에서 한 일 년 동안이라도 그렇게만 해 나간다면 정말이지 즐거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현실이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승천하자고, 극락가자고 지금 빌겠습니까? 오늘 없는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즐거움이 있어야 내일도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무겁게 두 어깨에다 잔뜩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삶은 삶의 보람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짊어지고 다니다가 다음에 극락가거라.' 하고 49년 설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모르는데 내일 천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근본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게 되면 마음이 푸근해지니 그게 바로 극락이자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중용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과 보이는 곳을 싸잡아서 활용하는 것이 중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내가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면, 나를 믿으라고 하지 왜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부처님 당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 "네가 네 마음을 안다면 내 마음도 알 수 있느니라, 네가 네 가죽을 얻고 살을 얻고 뼈를 얻고 골수를 얻는다면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것이니 둘이 아니니라, 그러니 걸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떨 때 난 떡 한 그릇, 물 한 그릇, 향 한 개비 꽂아놓고 천도해 주는 예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러고는 옆에 있는 우리 스님들더러 "이 돈 어려운 사람들 나누어 주어라." 하거든요. 아, 그게 얼마나 잘한 천도입니까? 다시 이 세상에 나올 때 무심 예금통장을 가지고 나오게 만들어 드리는데 그보다 어떻게 더 잘해요? 이게 거짓이라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아 있지도 않을 겁니다.

▲질문자1: 스님께서 주인공을 보려면 극락세계에 가는 것도 바라지 말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나 무명에서 해탈하지 못한 불우한 중생들은 혹시 지옥이나 무지한 짐승으로 떨어지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마음으로 다스려야 합니까?

▲스님: 육도윤회에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고 짐승이 되면 어떡하나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그걸 몽땅 놓으세요. 과감하게 놓아야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원력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처사님이 다시 탄생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기복으로만 비는데, 비는 그 사람이 바로 영원한 자기 부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이 인간 마음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거든요. 이 세상 살림살이가 전부 가설이 되어 있는데 마치 전기선이 가설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주가 세포와 같은 법계란 말입니다. 지구도 엄기설기 거미줄처럼 되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질문자1: 스님께서는 육신통을 다 통하셨는데 저희들이 오늘 무슨 인연으로써 이 자리에서 법을 듣게 됐습니까?

▲스님: 과거도 미래도 없는 지금 인연이죠. 이렇게 만난 것이 인연 아닙니까? 무슨 과거를 찾고 미래를 찾습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을 안다, 깨달았다는 말을 안 합니다. 어찌 여러분과 내가 둘이겠습니까? 작으면 작은 대로 여러분이 되어주고, 여러분이 작으면 나도 작고 여러분이 크면 나도 큰데 무엇이 거기에 불겠습니까?

▲질문자1: 저희들이 세속 인연이 다해서 스님도 저희들도 이승을 떠난 후 언제 다시 만나 볼 수 있겠습니까?

▲스님: 삼천 년과 오늘을 대보니 합쳐져서 똑 같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데 작년이니 올해니 하는 것이지 시공을 초월해서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하는데 거기 삼천 년이 붙을 자리가 어디 있고 오늘 내일이 붙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대로 하나 하면 그냥 하나이고, 둘 해도 둘이 하나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내생에 인연이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참자기를 발견하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둘이 아니게 나투는 도리를 알면 세세생생 끌고 데 없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으면서 네가 있고 내가 있으니 그 인연이 영원한 것이죠. 처사님하고 내가 둘이 아닌데 내생에 또 만나자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따로따로이겠습니까?

▲질문자1: 스님께서는 우주의 구조나 다른 혹성들의 이치와 그곳에 살고 있는 인종들의 세계도 알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혜안으로 인공위성이라든지 비행접시 등의 장비를 현대 물리학자들이 탐구하는 데 지혜를 제공하셔서 물질문명의 발전에 기여를 하셨으면 합니다.

▲스님: 비행접시는 한 차원, 두 차원, 세 차원 넘어간 사람들의 공학입니다. 마음으로 만든 것이지 물질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리드해 나갑니다. 이족으로 가자 하면 그냥 가는 것이지 운전을 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지구 안에서 만드는 건 물질입니다. 그런데다 정신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 즉 허공에 꽉 차 있는 생명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물건을 못 만드는 겁니다.

▲질문자1: 물리학적으로 봐서 빛의 속도 미만에서는 자연과학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만 빛의 속도를 초월하는 마음의 현상은 현대 이성에 입각한 자연과학에 의해서는 규명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이 공부를 해서 시험해 보세요. 교수님이 학교 강당에 들어가시면 강당 바른쪽에는 무엇이 놓여있다는 걸 지금 금방 보고 오실 수 있죠?

▲질문자1: 네. 그렇습니다.

▲스님: 바로 그겁니다. 또 댁에 가시면 바른쪽의 화단에 무슨 꽃이 활짝 피어 있는지 그것도 금방 보고 오실 수 있죠? 그와 같이 한 순간에, 한 순간이라는 언어도 불지 않는, 빛보다 더 빠른 거예요. 빛보다 더 빠른데 한 쪽만 보는 게 아닙니다. 한 찰나에 전체를 보고 오는 그 맛이야 뭐라 말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해도 부처님께서는 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질문자1: 그래서 현재 과학이 당면하고 있는 서구 문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스님 같으신 분들께서 그러한 혜안으로 중생들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스님께서 미국에 오래오래 계시면서 크신 진리를 여러나라 말로 번역해서 홍보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스님: 교수님께서 그렇게 마음 내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무조건 주인공에 맡기면서 주인공만이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교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3개국의 언어에 손색이 없으시니 잘 하시면 여러 나라 사람들의 마음도 사로잡을 수 있는 살아 있는 글이 나오게 될 겁니다. 죽은 글은 필요 없습니다. 살아 있는 글이어야만이 그 책 한 권을 보고도 꾸부러진 허리가 쭉 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5: 스님, 금강경에 과거, 현재, 미래가 불가심이라고 했는데 절에 가서 스님께 생활이 참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보살님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습니다. 업장을 녹이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고 말씀하시던데요.

▲스님: 모두 공해서 돌아가는 것이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한다고 했는데 거기 업이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공해서 돌아가는데 무슨 업이 붙습니까? 외려 업이 있다는 그 관념 때문에 업이 붙어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라도 제발 그런 데서 벗어나야 해요. 둘이 아닌 까닭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자1: 스님께서 여태까지 한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스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같은 상태에서 한마음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한마음이 된 거 아닙니까?

▲스님: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죠. 우주전체, 삼천대천세계가….

▲질문자1: 그러면 저같이 한마음이 안된 상태에서 한마음으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돌려서 스님하고 똑같은 위치가 되게 해 주세요.

▲스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과 댁의 생명이 다릅니까?

▲질문자1: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 다르지 않죠? 그런데 어리석게 생각하기 때문에 얽매이는 겁니다. 그 얽매이는 것만 벗어난다면 똑같은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까지도 뭉땅 버렸어요. 그러시면서 "전부 나 아님이 없기에 작은 것 하나도 버릴 게 없네." 하셨어요. 그 분의 자비는, 다 버리고 더 버릴 게 없으리만큼 자비라는 말도 불지 않을 대자비 아닙니까? 그 뜻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지수화풍을 먹고 사는데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감사함을 몰라서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살든 못살든,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고통을 받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고통을 받으니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따로 있다면 어떻게 한 마음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보살로 화해서 원하는 대로 응해 주셨습니다. 그걸 이름해서 32응신으로 나투신다고 하는 거예요. 부처를 어디서 구합니까? 중생들의 마음속에서 구하죠. 중생들은 부처님을 따라서 마음을 발견하고, 중생들 마음속에서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모두를 버릴 게 없이 얻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자6: 스님의 설법을 들은 건 한 두 번밖에 안되는데요. 불교를 전혀 모르는데도 하나의 생활철학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많기 때문에 스님을 존경하고 자꾸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교육정도, 환경의 척도로 희노애락을 나누는 것이 전부 다 틀리고 진실된 게 없으니 그걸 다 버림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갖고 진아를 발견하고, 또 지금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걸 들으니 각자 자기 생각하는 걸 질문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스님: 아니 답답하지 않아요.

▲질문자6: 스님께서 말씀하시면 굉장히 시원함이 있습니다. 중생들이 희노애락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스님: 남아 있지 않으면서도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것을 내놔 보십시오. 방구를 뀌셨으면 내놔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여하게 말하고 움직이고, 여기 오실 때에 발자취를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놔버린다, 버리지 않는다도 없이 그냥 걸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살아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뭘 걱정하십니까? 항상 그대로 여여하게 놓여지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러기에 남아 있다, 남아 있지 않다하는 언어가 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뜻을 알고 그와 같이 해 나간다면 그 맛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장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지만 내가 맛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서야 한번 시켜 먹어 봐야지 하고 생각을 내듯이 여러분이 직접 먹고 맛을 알아야 하겠기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고 또 찾게 되는 것이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부터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39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다 공해서 돌아가는데 무슨 업이 붙습니까?

잘났든 못났든 자기를 믿으세요

기쁘든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퇴마승 해원

영험 도량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접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접신
- 20년전 낙태혼 접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접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 원 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

신비하게 소원을 이루는 기도처

米岩寺 '쌀바위'



- 지방문화재 제371호 -

백제 침류왕 때 부여 **쌀바위**와 자연암반수인 **神泉水**의 영험이 자자하여,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얻었고, 병자가 쾌차하게 되고, 수험생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업가는 사업이 번창하는 등 갖가지 소원을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인근 주민들은 지금도 소원을 이루게 해준 **미암사 쌀바위**를 부처바위, 미륵바위 혹은 촛대 바위, 남근석 바위 라고하며, 신비한 영험이 널리 알려져서 생로병사의 운명을 바꾸고자 전국에서 **성지순례**자가 많이 참배하여 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운명을 상담해 드립니다.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21-5

전화 041)832-1188~9

쌀바위 미암사 주지 석만청 합장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새로운 인연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곳 현대결혼 연구원에서
당신의 동반자를 찾아보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인연의 사람과
현대결혼연구원에서...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위치안내 ◁
1호선 소사역 하차
(북부 3번출구 150m지점)
전화상담 후 방문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 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345-5411
휴대폰 : 011) 288-2944

고혈압 · 순환기질환

진정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

※ 혈관속에 만병이 있습니다※

◆ 혈전(血栓)이란

혈관내에 생기는 단백질의 피브린을 주성분으로 형성된 젤(gel) 상태의 혈액 덩어리로서 혈액의 흐름을 악화시키고, 각종 질병(성인병)을 유발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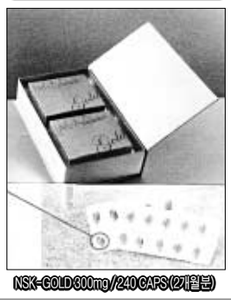
◆ 혈전성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중풍), 노인성치매, 당뇨성정맥폐쇄증, 손발절임, 눈이 침침함 등

◆ 혈전용해효소 (낫토키나제)

대두의 발효중 미생물(납두균)이 만들어 내는 신기능성 특수효소물질(Nattokinase)
(강력한 혈전용해 능력으로 순환기계질환의 예방과 개선에 탁월한 기능성 효소물질)

◆ 국제혈전용해학회 에 발표(1996년), 분자구조식이 규명되어 그효과가 과학적 으로 입증됨(일본 생물과학 연구소)



NSK-GOLD 300mg/240 CAPS (2개월분)

- 늘어나는 평균수명과 늘어나는 순환기질환
- 식생활 습관의 서구화 가공식품, 동물성지방 스트레스, 운동부족 환경오염

대건메디칼 053-744-2502 011-811-3938
(약식행심) (안내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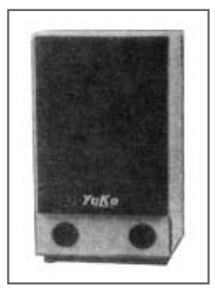
소리공양 실적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시설 설치.
1500여 사찰에 무선 마이크 및 각종 마이크 공급.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귀신은 속여도 사주팔자는 못 속인다.

스님, 법사님, 보살님 여러분 !
신도님들의 사주상담시에 <용신 잡는법>문제로 얼마나 골치가 아프십니까? 여기 여러분의 골칫거리를 말끔하게 해소시켜 줄 명리비결이 있습니다. 이를 습득하느데는 많은 지식과 공부가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한글과 덧셈,뺄셈,곱셈만 알면 누구든 쉽고도 빠르게 용신을 찾을 수 있도록 본서는 명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간의 공부로 명리학의 대가가 될수 있음을 자신있게 알려 드립니다.
또한, 본서를 공부하면, 여러분들의 신도님들 인생상담은 물론, 불사를 일으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것을 확신합니다.



- 서적명 : **최신팔자명리학 비결**
- 규 격 : A-4 용지, 620 페이지
- 저 자 : 오산 정대균
- 가 격 : 220,000원
- 구입방법 : 하기 계좌로 입금하시고 전화를 주시면 택배로 우송함.
- 기타사항 : 본서내에는 <용신잡는법> 이외에 각종 최고수준의 사주분석 비결들이 담겨저있음.
- 계좌번호 : **국민 765202-04-019996**
  농협 170202-56-037616
  예금주 : 정대균

그외, 본서의 비결들을 단기간에 전부 습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본연구소에서는 **1개월 과정의 저자 직강의 강의**를 8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수강신청 바랍니다.

www.sazoopalza.com

오산 팔자 심리학 연구소

서울시 대림 3동 779-15호. **한글인터넷 주소 : "사주 팔자닷컴"**
전화 : **02-831-0055**(대표)
H · P 011-208-0051 FAX 02-831-0058

사암침술 · 명리학 강좌

도전하는 자만이 성취할 수 있읍니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면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저희학회에 오셔서 3개월만 수강하시면 누구나 전문가로서 삶의질을 높일수 있읍니다.

사주추명학 강좌(초~고급)

가장 어렵다고 하는 용신법을 가장 쉽고 간단하게 배울 수 있으며 역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2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내용** : 사주작성, 취용법, 대세운법, 사주간명법, 적성판단, 직업판단, 택일, 궁합, 작명법(실습위주)
▶ **개강** : 2003. 10. 8(주 2회 - 매주 수,목요일.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강사** : 명리학 교과서, 매화역수 저자 직강(교재 무료)

사암침술 강좌(초~고급)

3개월이면 침술인에게 필요한 실력을 3배이상 책임지고 높여드립니다.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 정골방법, 종합실습
▶ **개강** : 2003. 10. 6(주2회 - 매주 월, 화요일. 주 · 야간반)
▶ **강사** : 침술즉효요법, 침술학 교과서 저자 직강(교재 무료)

매화역수 강좌(고급)

매화의 맑고 독특한 향처럼 오직 수리학(1~9숫자)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매우 재미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개강** : 2003. 10. 10(주 1회 - 매주 금요일. 주 · 야간반 : 1개월완성)
▶ **강사** : 매화역수, 명리학교과서 저자 직강(교재무료)

정통풍수지리 강좌(초 ~ 고급)

패철 사용법을 위주로 관산을 통해서 음택을 터득하고 양택에서는 사무실, 점포, 가옥의 길흉판단, 풍수건강법, 풍수인테리어에 중점을 두고 강의합니다.

▶ **개강** : 2003. 10. 8(주 2회 - 매주 수,목요일. 야간반 : 2개월완성)

사 암 침 술 학 회
장소 : 화암빌딩 402호(종로3가 자하철 12번 출구)
문의 : 011-307-2975. 02-355-8312

당 뇨

다운 밸런스

- 당뇨,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그것은 다운 밸런스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다운 밸런스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다운 밸런스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다운 밸런스 90mg cap 90 cap × 3병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발약사(한의사) 박동원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다운 밸런스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갱년기 장애 등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자율신경실조증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정력증강, 술, 담배해독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암, 관절염, 고혈압

C.W. 초원케미칼라이프 Co.
(구)탄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 료 전 화 080-598-9832

중풍(뇌졸증)고혈압

해결책 보인다

100% 한방생약제제 **안티 하이퍼**
Anti-hyper

한국인의 사망율 1위
: 고혈압 및 상관된 질환인 뇌졸증 · 심장마비 · 협심증 · 심근경색

안티하이퍼(Anti-Hyper) 복용이 꼭 필요한 사람

· 고혈압환자
· 협심증, 뇌졸증(중풍), 동맹경화증, 심근경색환자 및 동 질병 예방
· 약물(신약)의 각종 부작용이 염려되는 사람
·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심혈관계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사람
· 손발이 저리고 아프며 다리(下肢)에 힘이 없고 눈이 침침한 사람



- 개발약사 약력 -
- 1941년 2월 5일 경북 상주 출생
- 1965년 효성카톨릭대학교 약학과 졸업
- 1997년 흥채학 연구소 설립
- 현재 대체의학, 분자 교정의학, 체질영양학 연구 겸 새한빛약국 (반석 당뇨 연구실) 경영중
- 저서 : 21세기 만성 난치성 피부병

2달분 258,000원

구입신청 033-255-5669 오리엔탈제약(주)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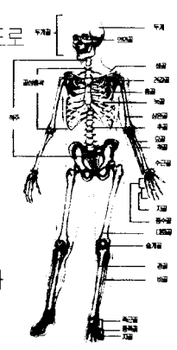
관 절 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 스 크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 습 진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당신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체이탈과 영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조상신과 중음신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 조상의 무덤속까지 볼 수 있게 합니다.
  (예 : 물 또는 나무뿌리가 침범했는지 여부 등)
- 영가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 영가와 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 5년후 10년후의 미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전생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천도시 영가가 세수하고 새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노잣돈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영가가 참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합니다.
- 대상 : 스님, 법사

좋은소식(영험도량)

지상의 그 어떤 악한 중음신도 단방에 보내는 도량입니다

- 영가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현상을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모든 빙의령)
- 무병, 신병으로 고생하는 분, 마귀에 눌리고 환청으로 잠못 이루는 분
- 밤마다 가위눌리고 악몽에 시달리는 분, 각종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분
- 주위에서 볼때 도저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힘든 행동을 한다든지, 방안에서 혼자 중얼거린다든지 등등... 조상의 음덕으로 사업성공을 발원하는 분, 하는일마다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

자비정사 영험도량
02)3453-3421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8화 우루빌라 카사파의 귀의



아, 아니….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 그 무서운 독룡이 마치 지렁이처럼 허우적거리고 오히려 이 사문은?

"브라만은 그렇게 놀라지 말라! 어제 저녁에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 세상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나는 이미 삶과 죽음의 바다를 건넜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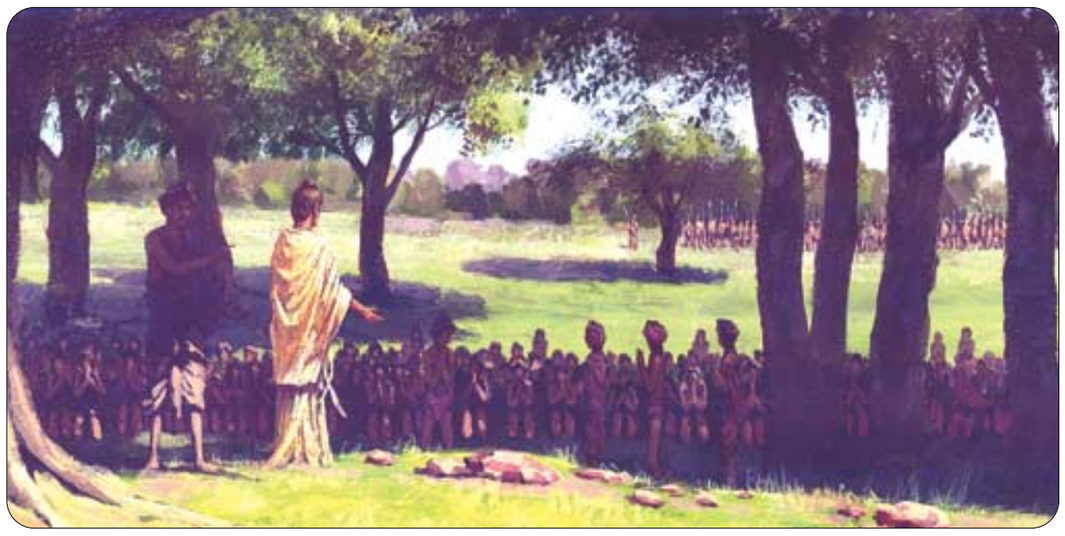
"사문이시여, 그대는 도대체 누구시옵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는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처럼 훌륭하신 사문을 죽음의 함정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그 무서운 독룡(毒龍)의 항복을 받고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이 없어 보이니 이미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신 듯 보입니다. 청하옵건데 사문의 정체를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이미 붓다가 된 몸이로다. 너는 나를 뱀이나 불을 다루는 안기랏사(Angirasas)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것은 너희들처럼 사악(邪惡)한 길을 가는 자들의 생각일 뿐이다. 나는 이미 천안(天眼)으로 살펴보니 너희들이 무고한 중생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잘못된 길로 유도하니, 그것을 어찌 사문으로서 할 일이라 할 것인가.

카사파는 들으라. 너는 불의 신 아그니의 가호를 받게 되어 성스러운 불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한갓 천박한 속임수임을 나는 알고 있다. 너는 너를 따르는 너의 제자들을 속일 수 있었지만, 이 붓다의 눈을 속일 수는 없다. 또 독룡(毒龍) 따위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일으켰다. 그러나 그런 것도 다 비열한 속임수일 뿐이다. 따라서 너는 성자(聖者)도 아니며 더욱이 성자의 도(道)를 갖춘 자도 아니다."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불타고 있다.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비치는 형상이 불타고 있다. 불에 의한 인식도 불타고 있다. 눈과 그 대상과의 접촉도 불타고 있다. 눈이 접촉하는데서 생기는 감수(感受), 즉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들도 불타고 있다. 왜 불타고 있는 것일까. 탐욕의 불, 노여움의 불, 어리석음의 불도 타오르고 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걱정하고, 슬퍼하는 불로 타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관찰할 수 있는 현명한 제자들은 눈이나 형상, 그 접촉이나 감수, 그리고 귀나 코, 혀나 몸이나, 마음에 대해서도 모두 하잘 것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되면 집착에서 떠난다. 집착을 버리면 해탈(解脫)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인식이 생기고 생존의 밑바닥은 이미 다 없어진다. 청정한 수행은 이미 완성되었으며 해야 할 일은 다 마쳤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윤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알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의 설법으로 눈이 열린 새로운 오백 명의 제자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믿어온 불의 신 아그니의 허구에 분노하여, 제 스스로 아그니사원을 철저히 파괴하여 다시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처럼 잘못 수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불전의 기록은 단순한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의 사회를 지배하던 브라만교(Brahmanism)에 대한 신흥 종교인 불교의 도전, 그리고 정복을 의미 한다.

붓다는 또 다른 의미에서 과연 전륜성왕임에 틀림없었다. 당시 브라만교에서는 성화를 모시는 것을 제사의 중심을 이루는 신성관념으로 믿고 있었으므로 불의 관념을 파괴시키는 것은 확실히 브라만교를 깨는 행위인 것이었다. 한 가지 뚜렷한 예로써 불교에선 열반(涅槃)을 니르바나(Nirvana)라 하는데 그 의미는 불이 꺼져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불의 의미가 본시 번뇌(煩惱, Klesa)를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가다국 제일의 대 사원으로 불을 숭배하여 모셨던 이 역사적인 사원은 그동안 그 곳에서 몸 담았던 승려들에 의하여 철저히 파괴되어 니련선하(Nairanjana) 강물 속으로 던져졌다. 이 사건이야말로 당시 마가다국 사람들의 정신계를 지배했던 사교(邪敎)에 대한 붓다의 승리를 말하는 것으로 불교가 전 세계로 전도되게 되는 그 첫 걸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지금에야 붓다를 만나 저의 참모습을 되돌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처님께 귀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여 참된 불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루빌라 카사파의 간절한 요청에 붓다는 그의 귀의를 허락하고 구족계(具足戒, 정식으로 출가 수행승이 되는 의식)를 주었다.

불자가 된 카사파는 그가 거느리고 있는 오백명의 수행자들과 함께 붓다의 수행승으로 허락을 받아내었다. 이리하여 마가다국에 있는 제일 큰 교단이 그대로 붓다에게 들어오게 되었다. 이때 붓다는 가야쉬르사(象頭山) 사원에서 새로운 제자들을 향하여 '타오르는 불의 법문' 이라는 유명한 법문을 설하게 된다.

"짜증나는 세상 어떻게 하죠?"



◇9월6일 선심리치료연구소에서 도각스님이 상담을 하고 있다.

우울증

주부 김 청련화(55, 가명)씨는 음식과의 전쟁을 치르는 추석 연휴가 차라리 낫다고 말한다. 몸은 좀 고됐지만 부엌에 틀어박혀 음식만 제대로 해내면 만사형통이었기 때문. 집에 오면 모든 게 귀찮다며 틈만 나면 드러눕는 남편 보는 것이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다. '성실맨'으로 통하던 남편, 지난번 승진 때 밀린 타격이 큰가 싶었는데 명절 때 두 동생들과 비교까지 당해 기분이 바닥이다. 씁쓸한 마음에 한풀이나 하자 싶어 딸내미를 찾으니 지원하는 회사마다 족족 떨어진다고 짜증내는 통에 말붙이기도 어렵다.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보니 맛있는 것, 기분 좋은 것도 없어진데다 불면의 밤은 늘어만 간다.

중압감에 의한 스트레스가 원인
심하면 자살로 이어지기 쉬워
마음 다스려 내적 안정 강화시켜야

◈ 나, 우울증?

전문가들은 김씨의 증상을 방치하면 우울증으로 깊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무기력증을 겪고 있는 김씨의 남편, 장기 경기침체가 낳은 취업난으로 중압감을 느끼는 김씨의 딸 역시 '마음의 독감'과 멀리 있지 않다고 덧붙인다. 이따금 누구에게나 단순한 우울이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경기불황과 각박해진 민심 등의 문제를 내세워 심각한 증세를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우울증 주요증상>

△ 우울 · 불안감 · 공허감 · 절망감 등이 계속된다.
△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낀다.
△ 초조 · 피로감 등이 오래 지속된다.
△ 수면시간이 지나치게 적거나 지나치게 많다.
△ 식욕저하나 체중감소가 있다.
△ 쉽게 짜증이 난다.
△ 집중력 · 기억력 저하가 계속된다.
△ 두통 · 소화불량 · 만성통증 등의 신체증상이 있다.

◈ 우울증은 뇌의 병?

우울증은 가족의 사망이나 실직, 실연 등의 특별한 이유없이 다가오는 경우도 많다.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이란 신경전달물질의 농도가 떨어지면 생기기 때문이다. 남성은 평생 10명 중 1명, 여성은 5명 중 1명꼴로 크고 작은 우울증에 시달린다. 가벼운 우울증은 치료를 받지 않아도 줄어들 수 있지만 심한 경우 자살로 이어진다. 서울백병원 신경정신과 우종민 교수는 "매년 5,000명 정도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울증 환자의 15~20%가 자살을 시도하며, 3%정도는 실제 자살에 성공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고 말했다.

◈ 어떻게 물리치나

일반 신경정신과에서는 세로토닌의 농도를 올려주는 약물을 사용해 우울증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감기가 호흡기에 생긴 병인 것처럼 우울증은 뇌에 생긴 병이므로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울증 환자의 80%가 약물효과를 본다.

그러나 약물에만 의존할 수 없다. 선심리치료연구소장 도각스님은 "우울의 근원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등의 삼독(三毒)"이라며 "명상과 호흡으로 마음을 다스려 내적 자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사고를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정신분석 전문의 김혜남 씨는 "이 시대에 우울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사회 · 구조적으로 경쟁이 심해 조금만 정신을 놓아도 도태될 것 같은 세상, 지극히 개인적인 세상에서 불안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우울하다는 것을 무기력하거나 열등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강신재 기자 thatiswhy@buddhapia.com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용서 되지 않는 아버지

40대 초반의 부인이 저를 찾아 왔습니다. 저와 마주 앉은 부인은 조금 망설이다가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름쯤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오랜 세월동안 협심증으로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저희 형제들은 삼남맨데, 삼남매 모두가 어머니에 대해서 병적인 애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종의 보호본능 같은 거였죠. 삼남매 모두가 어머니에게 편향된 애정을 가지다 보니 자연히 아버지에 대해선 적개심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왔죠.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는 대상으로 말입니다. 이런 저희들이다 보니 혼자된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애틋해 지지가 않아요. 80세 노인이 혼자 빈집을 지키고 있는 걸 보면 가엾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 감정 역시 절절한 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삼남매 중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문제를 자식들인 저희들이 해결해야겠는데 방법이 쉽게 나오지 않는군요."

부인은 이렇게 서두를 꺼내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충청도가 고향인 부인의 아버지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근목피로 근근이 생명을 유지해 가던 일제 시대에도 1년에 쌀 10가마씩을 절에 시주 할 정도였다고 하니 가세가 얼마나 풍요로웠던가는 짐작하고도 남죠. 이렇게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란 아버지는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셨는데 방학 때 집에 갈 때면 서울에서부터 인력거를 대절해서 타고 고향인 충청도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전혀 하지 않고 자라신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히 주위 사람들과 잦은 충돌을 빚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방 후, 각처에서 사립대학이 세워질 때 모 사립대학 문과대학 학장으로 대학에 취업한 아버지는 몇 년 후 이사장과의 알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대학을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로도 8번에 걸쳐서 비슷한 방법으로 대학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출판사를 자영하는 것으로 사회생활의 막을 내리셨는데, 출판사 역시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로 해 성공을 거두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외양은 화려한 듯 하지만 내적으로는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족 모두는 늘 경제적 압박감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고통은 더욱 커서 어머니는 자식들이 등록금을 낼 때면 번번이 형제들한테서 돈을 꿔야 하는 수모를 감수하면서 일생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 위에 군림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는 아버님은 가족들한테도 늘 그런 입장을 취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머니한테는 당신을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쯤으로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의 어머니는 아버님의 횡포를 묵묵히 다 받아드리셨는데 그 결과 협심증으로 일생동안 고통 속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자신들 삼남매는 어머니가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가슴 속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아버지만 홀로 남으셨는데 당신에 대해 애정이 생기지 않아 자신들도 괴롭다고 하면서 부인은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희 삼남매는 지금 다 그만그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셋 다 40평 이상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으니 중산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특히 남동생은 무역을 하는데, 하고 있는 일이 잘 돼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는 아버지를 모시기에 불편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남동생이 아버지를 모시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버지가 워낙 올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올케는 거의 시댁과 왕래를 끊고 지내왔거든요. 그리고 언니는 교환교수로 간 남편을 따라 미국에 갔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천상 제가 모셔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흔히 미움도 일종의 사랑이라 하는데 저는 아버지에 대해 미움의 감정도 없습니다. 불 꺼진 창 같다고 할까요? 이런 감정으로 아버지를 모신다고 나서기에는 너무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아버지에 대해 미움의 감정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부인의 질문을 받고 난 저는 한참동안 생각에 잠기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이 만약 부인이 어렸을 때 버렸다고 가정 해 보세요. 그랬다면 부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요. 그리고 만약 부인이 늙으신 아버님을 돌보지 않고 버려두었다고 가정 해 보세요. 버려 둔 채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그 다음 부인의 심정이 어떻게 될까? 하고요. 두 가지 가정을 깊이깊이 해 보신다면 답이 저절로 나올 것 같네요." 化緣 (02)704-3577

자식과 부모의 도리에서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과일잡채



참외 · 복숭아 2개씩, 밤 · 대추 4개, 잣1큰술, 국물(배즙½컵, 오미자 우린물 2컵, 꿀 2큰술, 식초 2큰술, 발효겨자½큰술, 생강즙 약간)

1. 과일은 껍질째 나박 썰고 설탕을 조금 뿌려 절인다. 밤은 껍질을 벗긴 후 얇게 저미고, 대추는 채썬다.
2. 배즙, 오미자 우린 물, 꿀, 발효겨자, 생강즙, 식초를 잘 섞는다.
3. 밤과 대추, 잣으로 장식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mahamall.co.kr

향토질그릇 발우(4합)

해인사 율원 고증
향토 천약유약 사용



향토질그릇 발우는 해인사 율원의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작한 와발우(瓦鉢盂)다. 순수한 황토와 천연유약을 사용해 인체와 환경에 해가 없으며, 1300도의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 강도가 높다. 소박한 한국적 미가 특히 돋보인다. 값은 60,000원. (02)732-1520

파동명상수련을 통하면 영통(靈通)을 이룰 수 있습니다.

혜광스님(☎ 019-588-6448)은 파동명상학회 5기생으로 난치병(암, 심장병, 폐결핵, 기관지염, 천식, 신경성질환 등)을 파동명상요법으로 접근하여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아래의 글들은 스님의 허락을 얻어 연재형식으로 몇 주간 그 사례담을 옮겨 싣습니다.

◎ 올해 52세의 이모씨는 넉 달 전에 유방암 1차 수술을 하였다. 그 후 암이 재발하여 2차 수술을 기다리던 중 스님을 만나 암의 발병과 그 원인에 대한 영적인 접근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파동명상 상태**에서 놀랍게도 암이 있는 자리에 1200년(신라시대) 전, 어떤 원결(愛憎)로 인해 한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자와 아이(세도가의 첩과 아들)의 영혼이 그곳에 있었다. 그 영혼들은 그 당시 세도가의 아내(현재의 암환자)였던 그녀의 핍박과 학대 속에 깊은 산 속, 어느 굴속에 갇혀 굶어죽게 되는데, 그 때의 그 모자의 처절한 가슴속 원한이 시공을 뛰어넘어 그 때 그들이 경험했던 절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녀의 가슴속에서 재현(유방암)시키고 있었다. 1차 수술이 실패로 돌아가고 다시 발병한 원인을 영가에게 물어보니, 가슴을 수십 번 도려내도(암수술) 자신들은 떠날 수 없다며 거부의 몸짓을 강하게 표현했다. 스님께서 '영가시어'를 통하여 그 영가들을 위로하고 타이르니 마침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떠나갔고, 그 이후 환자의 상태는 2차 수술을 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한다.

◈ 「파동명상 지도사」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수련을 통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수련내용

◈ **파동명상제령 :** 제주(祭主)또는 신도가 몸속의 영가와 대화할 수 있으며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 **원격명상제령 :** 제3자가 파동명상상태에서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불러내어 대화하거나 제령천도 할 수 있다.
◈ **영통靈通수련 :** 특별한 파동명상 기법을 통하여 영통을열 수 있게 하는 비법을 전수한다.(영통수련은 상담 후 결정)
◈ **수련대상 :** 스님, 법사, 기공사, 의사, 약사, 기타 상담사
◈ **수련교재 :** 기초 교재, 비디오 테이프, CD 교재
◈ **수련일시 :** 9월 넷째주 (본원사정에 따라 변경 可)
◈ **수련과정**
① 파동명상 전문반 : 파동명상 지도사 수련과정으로 6일간 수련으로 지도사 자격증 수여(수련비 200만원)
② 영통수련반 : 상담 후 결정





◇ 지도교사 박봉순
◇ 2001년 10월 SBS 호기심천국
◇ 2002년 4월 KBS VJ특공대
◇ 2003년 3월 i-TV 위험한초대 출연

동방파동명상연구소 ◈ 문의처 : 017-587-0777 ·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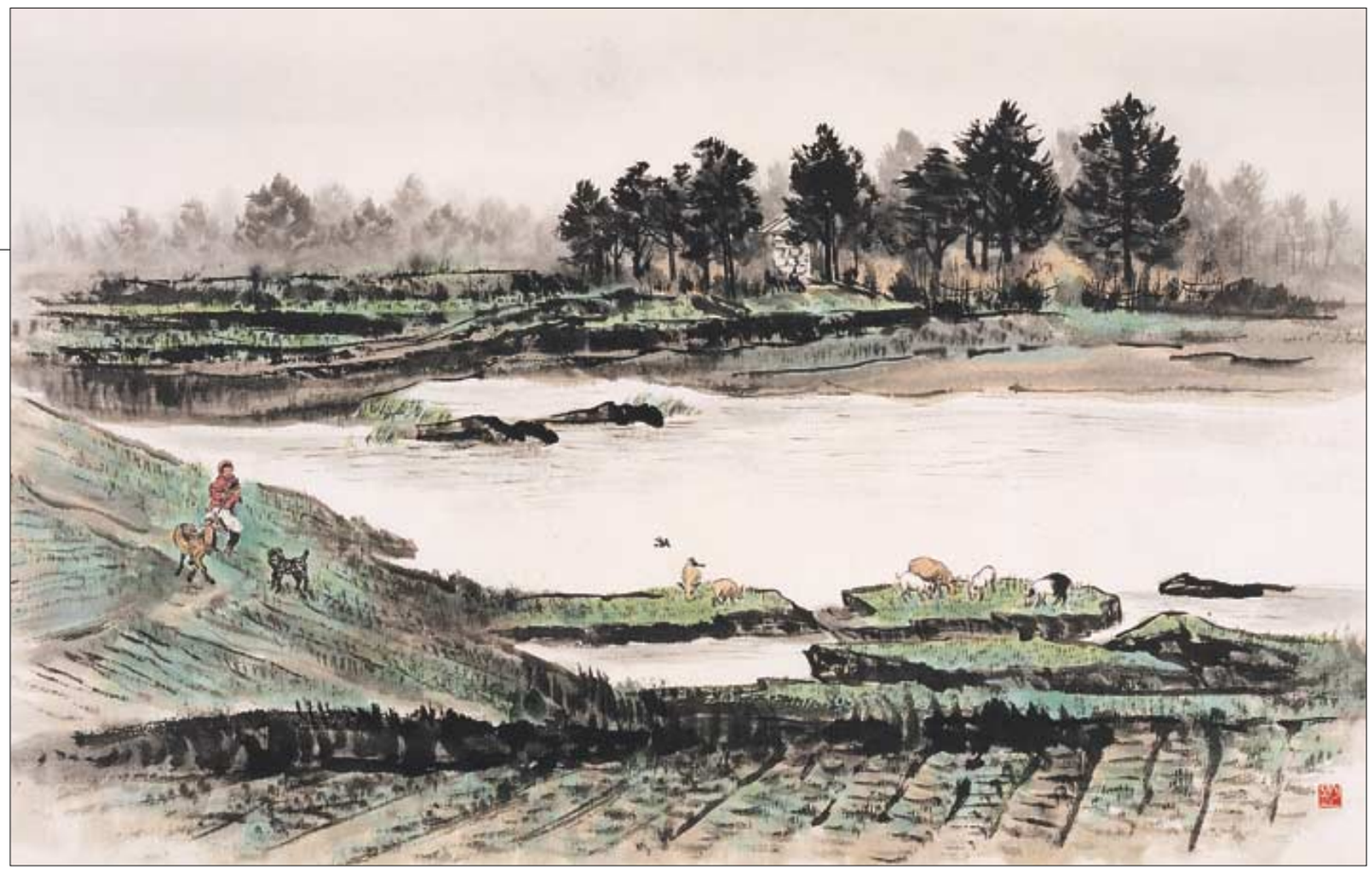
인도그림기행

17 그림·글 이호신

孝의 성지에서 만난 천진 여래

어린 천사여, 초원의 빛이여

(상카시아 마을 호수와 아이들)



◇초원의 빛(172×136cm).

사실 상카시아 마을에 도착하자 우리를 반겨준 사람은 오랜지색 승복을 입은 인도스님 몇 분이었다. 일교차 때문인지 모두 털모자를 썼고 매우 반갑다는 표정으로 빛바랜 명함을 나누어 주었다. 쓸쓸한 상카시아 성지를 지켜내는 외로운 스님들.

그러나 잠시 후 마을 아이들이 하나 둘씩 달려오더니 마침내는 구름떼처럼 몰려들었다. 형편껏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일행에게 달려드는 아이들. 그 특유의 큰 눈망울을 굴리며 미지의 나라에서 온 나그네들을 바라보는 눈길은 순수하다 못해 성스럽다.

인간애의 지고선(至高善)인 '효(孝)의 성지(聖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붓다의 '삼계보도(三階寶道)', 그 참뜻을 알기나 할까. 아니 모르면 또 어떠리.

천진(天眞)은 성인(聖人)의 품성이요, 여래의 참모습으로 비추어 진다. 본래의 모습을 간직한다는 것은 진리의 거울을 지닌다는 뜻이다. 참사랑은 천진으로부터 나투는 자비의 행위이다. 따라서 천진한 미소는 흐르는 샘물과도 같이 맑고 순수하다. 그 물은 그윽히 바라보는 이의 마음속으로 흘러든다. 아니 그 크고 맑은 어린 천사의 눈에 나그네가 찍혔다. 마침내 저도 나도 응현(應現)하여 한 마음이 된다.

어린 왕자와 천사들. 그들에 둘러싸여 화첩을 펼치니 붓다가 천상에서 몰고 온 싱그러운 바람과 지상의 흙내음이 함께 일어난다. 인류의 살붙이로서 오늘 만난 인연이 참으로 소중하고 거룩하다. 한때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시아부락에서 만났던 쇠똥마을 아이들의 눈망울, 그리고 그 먼 타국에서 만난 한국교민 2세의 아이들. 그 어린 천사들의 눈빛이 새삼 뜨겁게 마음속에 달아오른다.

무슨 큰 구경거리나 난 것처럼 아이들은 그림 그리는 나를 에워싸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깔깔거린다. 살펴보니 큰 아이가 갓난아이를 업는 모양새는 꼭 박수근 그림('아이업은 소녀')을 닮았다.

어느 분의 시인가 잊어버렸지만 박수근의 '아이업은 소녀' 그림을 보고 쓴 싯귀가 기억난다.

온 종일 아기를 업었다 내려놓으니
그만 내 작은 허리가 없어진것 같아요.

우리의 예전처럼 아마도 저 아이의 부모들은 일터로 나가고, 칭얼대는 아기는 저 어린 천사가 업고서 망연히 들녘을 바라보며 해질녘을 기다리리라. 이처럼 적막하고 심심한 오지 마을에 외지인의 발길은 모처럼 새로운 구경거리요, 무료함을 깨는 놀거리로 마을은 생기에 차오르는 것이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린 천사들과 작별하고 돌아보니 일행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모두들 마을입구에 세워둔 버스로 이미 떠난 모양이다.다급한 마음에 화구를 챙겨 길을 재촉하는데 호숫가 들녘에서 한 소녀가 목동이 되어 밀레의 그림처럼 떠 있는게 아닌가.

척박한 토질이 아닌 모처럼의 초원과 아늑한 호수, 그리고 엷은 안개가 잦아든 나무들은 숲을 이루어 환상의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어쩔 수 없이 호숫가로 달려가자 풀을 뜯고 있는 동물은 다름 아닌 의외의 돼지들이다. 가축을 방목해 키우는 현실속에 가축과 야생의 경계를 허무는 각별한 느낌이다.

소녀는 염소같은 양을 모느라 고삐를 잡고 씨름하는데 나를 보자 매우 당황하며 수줍어 한다. 조금 전 왁자지껄 함께 어울려있던 아이들과는 달리 외딴 호수에 홀로 목동이 되어 초

형형색색 옷을 입고 구름처럼 몰려드는 아이들
외지인은 어린천사들 무료함 달래주는 구경거리

원의 빛에 녹아 떠도는 어린천사. 지평이 넓을 수록 하늘은 끝없이 높아가고 그 천지는 자연스레 호수에 얼굴을 내비친다.

물이 귀한 인도, 아니 물이 성스러운 인도의 삶은 창세기에서부터 깊은 의미를 부여했다.

태초에 무(無)도 없었고 유(有)도 없었다. 공계(空界)도 없었고 그것을 덮을 하늘도 없었다. 그 무엇이 활동할 수 있었으리? 어디에, 그 누구의 보호아래! 오직 깊고 헤아릴 길이 없는 물은 존재하였도다.('리그베다' 경전에서)

그 깊은 물을 마시며 푸른 빛으로 번져가는 초원. 한가로운 돼지의 팔자가 복되어 보이는데 한 쌍의 까마귀마저 돼지의 등을 타고 놀아난다. 무릇 공생(共生)의 드라마를 저 풍광보다 더 아름답게 빚어낼 수 있을 것인가. 나무숲은 초원의 바람을 온전히 막아주면서 호수에 실바람을 실어 보낸다. 그 바람의 파문이 햇살을 받아 은물결 되어 잔잔히 번져가는 것을 보노라니 모처럼 나그네의 심회가 한갓지다.

사실 여행은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도, 여정속의 깨달음도 삶의 성찰도 중요하지만 때때로 한갓져야 하는 것이다. 조용히 풍경속에 점경(點景)되어 무심히 거닐어 보아야 하는 것이다.

화첩사생으로 항시 분주한 내게 오늘의 풍광은 긴장속에서 모처럼 해방되게 해준 고마운 선물이다. 무릇 풍경은 사람의 마음을 때때로 정화시키는가 보다.



◇인디아의 어린천사(63×92cm).

이렇듯 한눈을 파느라 주차장 주변에서 이미 함께한 점심시간을 넘겨 끼니는 건너뛰었지만 다행히 일행과의 합류는 무리가 없었다.

흐르는 시간속에서 작가에게 '찰나'와 '영겁'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을까. 조금 전 내가 만난 순간의 느낌들을 어떻게 마르지 않는 강물속으로, 그 이야기들을 담아 띄워 보낼 수 있을까.

오늘은 다만 나의 연인,
어린천사여!
초원의 빛이여!
그 눈빛속에, 바람속에 잠들고 싶어라.

lhs1957@lycos.co.kr

협찬 : 안성 도피안사 · 실크로드여행사



윤장대(보물 제684호)

윤장대를 돌려 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용문사 대장전 • 윤장대 보수, 목각탱 • 석탑 • 석등 점안 회향 만등불사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 시대부터 1,200여 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인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온 천년고찰입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3만승재 대법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중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정신이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전해져 어느덧 용문사는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사찰로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용문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국보급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호전식 장경각인 윤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 목각 삼존불, 그리고 세조의 교지 등 다수의 보물 및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그 중 윤장대는 부처님의 힘으로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1,200년 동안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비로운 가르침을 설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면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용문사에서는 앞으로 매년 음력 3월 3일과 9월 9일에 윤장대 윤전 법회를 봉행하여 온누리에 불법이 두루 퍼져 한없는 복덕이 성취되길 기원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2003년 10월 4일(음 9.9) 중양절에 윤장대 윤전 법회 및 대장전 · 윤장대 보수, 목각탱 · 석탑 · 석등 점안 회향 만등불사를 봉행합니다. 세월의 무게 만큼이나 퇴락하여 빛이 바래 보수하고 수선하여 새롭게 부처님 위의를 빛내고자 하오니 무루 동참하시어 그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원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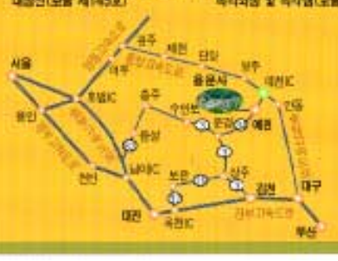
•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지혜가 구족하여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당일은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청 안 합장
신도회장 대행 박우식

• 회 향 : 2003(불기2547)년 10월 4일(음 9월 9일)토요일 • 동참금 : 등(1인1등) 1만원, 영가등 1만원 • 윤장대 윤전하실 분 동참금 1만원 • 계좌번호 : 농협 747028-51-009313, 우체국 702191-01-000252 예금주 : 용문사



대장전(보물 제145호)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명부전 지장보살 · 업경대 보광명전 삼존불 진영당 교지(보물 제729호) 자운루(문화재 자료 제143호) 극락보존 영남제일경원 범종각



용문사 오시는길

버 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30분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20분
승용차(서울) :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부산) :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IC
승용차(대구) : 중앙고속도로⇒ 만동 ⇒ 예천IC

삼사순례도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 문 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2리 391 · (우)757-800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전송 : (054)655-8405